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기도

전지전능하시고 예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오는 이 마지막 때에 더욱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비취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천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음과 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20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380호 2012년 4월 14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찾아가서 교회공동체 세운다!”

크리스천센추리, 주류교단 감소 막을 방안 ‘새 교회개척’ 증가 보도

최근 주류 교단들의 대다수가 교세 면에서 뒷걸음질치고 있어 주목된다. 미 NCC(National Council of Churches USA)가 최근 발간한 '2011 미국/캐나다 교회연감'에 의하면 작년 한 해 동안에도 한마디로, 최근 수년간 교인 수가 늘어나고 있는 교단은 증가세를, 줄어든 교단은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2011 교회연감'의 편집 책임을 맡은 아이린 린드너 목사는 “증가 혹은 감소의 정도가 둔화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최대 개신교 교단으로 오랫동안 기독교 성장을 견인했던 남침례교(SBC)의 경우 작년 0.42% 등 3년째 교인 수 감소를 보였다”고 말했다.

25대 교단 중에서는 남침례교 외 연합그리스도의교회(2.83%), 미국장로교(2.61%), 미국성공회(2.48%) 등이 감소대열에 합류했다. 복음주의

루터교회(1.96%), 미국침례교(1.55%), 전통주의 루터교회(1.08%), 연합감리교회(1.01%) 등도 퇴보를 보였다.

하지만 교인수가 가장 많은 가톨릭은 전년 대비 0.57% 증가를 기록했으며, 오순절 계통인 하나님의성회 역시 0.52% 늘어나 성령운동에 집중하는 교회들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시대상상을 반영했다.

따라서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주류교단의 마이너스성장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교회 개척이 제기되고 실제로 융통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크리스천 센추리(Christian Century)가 커버스토리로 보도한다. 동 지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커뮤니티로 찾아가 복음을 자연스럽게 나누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New Clergy, new churches: Church planting as a first call).

50년 전 미 주류 교회는 인구 15억 중 주류 전통 개신교가 3천만, 5분의 1을 차지했고, 주류 중 감리교회는 거의 5분의 3을 차지했다(1200만). 2009년 현재 주류 교회는 인구 3억에 2천만, 50년 전에 비해 교회가 3분의 1이 감소했고, 늘어난 인구비율로 보면, 주류 교회는 15분의 1로 전락했다.

교회성장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바로 사회의 세속화라는 외부 요인을 언급한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교회 내부의 문제 때문이다. 한마디로, 현대 사회에 대한 교회의 부적응이 눈에 띈다. 특히 젊은 사역자들은 대체로 학교에 배치돼 있어서 교회에 관련을 맺기 어렵고 교회현장은 나이 든 사역자들이 대거 점령하고 있어서, 새로운 목회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제까지의 분석이었다.

그러나 나이가 젊은 신학생들이나 아직 안수를 받지 않은 전도사 그리고 사회에서 어느 정도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어 세상 사람들을 더 이상 교회에서만 기다리지 않고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로 속속들이 파고들고 있다. 한마디로, 찾아가서 공동체를 만들어나가고



찾아가서 세우는 교회개척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있는 것이다.

복음주의루터교단(ELCA)에 속한 에밀리 스킷은 3년 전부터 뉴욕 맨해튼 이스트 빌리지에 사는 이십대들을 위해 매 주일마다 아가페 만찬을 열고 있다. 스킷은 X세대나 밀

레니엄세대들이 무엇을 원하는 지를 잘 알고 있다. 제도적인 교회 분위기보다는 모두가 잘 아는 친밀한 분위기에서 평등한 참여를 바란다 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 고기를 굽고 쿠키를 만들어

먹으면서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이 공동체의 이름은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는 친절한 크리스천의 대명사인 리디아를 본 따 즉 성리디아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이다.

20명 정도의 불신자들이 스캇의 사역으로 크리스천이 돼 이제 개척교회로 자리잡게 됐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바로 교단의 제도 문제였다.

에밀리 스킷은 예일신학대학원을 졸업했지만 아직 안수를 받지 못한 것이 바로 교단 법에 위반된 것이다. 먼저 성(聖) 리디아교회에서 베푸는 만찬이 성만찬으로 되기 위해서는 안수 받은 목회자만이 집전할 수 있고, 교회 개척을 원하는 목회자는 기존 교회에서 최소한 3년 이상의 사역과정을 거쳐야만 개척을 할 수 있다고 ELCA 교단 법은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ELCA는 더 이상 교단 법을 강요하지 않았다. 바로 신학교를 졸업한 목회자들이 곧바로 교회개척을 감행할 수 있도록 3년간의 사역을 유예시켰기 때문이다.

(3면으로 계속)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바른 선교”

미주크리스천신문, 30년 역사 지닌 문서선교지

주님의 지상명령인 “땅 끝까지 복음전파” 사역을 문서를 통해 그 사명을 다하고 있는 미주크리스천신문은 1982년 LA에서 시작, 30년의 역사를 지닌 문서선교지이다. 특히 1992년 9월 11일 장영춘 목사가 인수하고부터 날마다 발전을 더하고 있다.

기독교언론이 전무했던 동부지역을 커버하면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은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바른 선교”의 사시를 새롭게 내걸고 미주뿐 아니라 전 세계 43개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힘을 다하고 있다.

발행인 장영춘 목사와 특별히 편집장교회 성도들의 열성적인 헌신으로 미주크리스천신문은 미주 최대의 기독교신문으로 성장했으며, 편집은 뉴욕에서, 인쇄 및 배부는 LA에서 하는 이중구조 속에서도 컬러 제작과 교계 신문 중 가장 많은 양을 편집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무게 있는 신학논단과 여러 목회자들의 칼럼, 시론, 설교와 지역 교계소식 및 선교지 소식 등 다양하면서도 성경진리에 어긋남이 없는 편집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기독교계에서 인정받는 신문으로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미주크리스천신문은 주간 신문제작뿐 아니라 여러 가지 선교적 차원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

▶매년 세계한인목회자 및 평신도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호주, 일본, 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캐나다, 미주내 타 지역 등에서 개최된 세미나는 제 25회는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사들을 대거 초청하는 선교대회로 개최되기도 했으며 지난해 제26회는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됐다. 또 10년 전부터는 평신도지도자 세미나도 함께 개최해오고 있다. 올해는 서울 금란교회와 웨스턴워커텔 호텔에서 개최된다.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는 지구촌 곳곳을 순회하며 목회자들의 영적 재충전과 목회에 새로운 도전을 주며, 개최되는 각 지역교계 연합과 부흥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일년에 한번씩 '세계한인교회주소록'을 발간하여 세계 한인 기독교계와 목회자들에게 정보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다. 동 주소록은 미주뿐 아니라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 해외한인교회의 주소를 확보하며 매년 새로운 리스팅으로 교계에 필수품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어린이 한국말성경 이야기대회, 간증수필 공모, 특별 세미나, 후원음악회 등을 개최하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나라 확장 사업에 정진하고 있다.



2면

제 27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호스트 “금란교회” 역사와 부흥의 현장



3면

샌토렘 돌풍, 현실정치에 무릎 꿇다!



7면

히스패닉·라티노 이민 출신국가로 불러 달라!



13면

이슬람 뉴스 2012년 이슬람 세미나

Professionals for Global Missions

세계 전문 인 선교회

Pgm

중·장기선교사 훈련

- 일시: : 2012년 7월 9일(월)~21일(토)
- 장소: 멕시코 칸쿤 GMA 세광국제선교센터
- 대상: 장기 선교사 후보생, 비거주 선교사 후보생, 선교사로 재훈련을 원하시는 분
- 강사: 양춘길목사, 정인수목사, 호성기목사 외 미주 한인교회 지도자 김종관선교사, 이규종선교사, 조길순선교사 외 장기 선교사
- 접수마감: 2012년 6월 16일(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에 함께 동참함

선교의 동역자를 모집합니다!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동역자들을 찾습니다. 내가 있는 곳을 떠나 타문화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고 선교에 헌신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선교 공동체 훈련을 실시합니다. PGM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훈 련 비: \$300/개인 (항공료 자부담)
\$500/부부 (항공료 자부담)

훈련내용: 선교훈련 전문가가 선교지 내에서 실시하는 On-site 훈련으로 교육과 실습을 동시에 진행

Spiritual Formation of Missionaries
Survival Skills, Individual Intercultural Adjustment
Cross Cultural Tools for Missionary Work
Community Development Strategies
Evangelism Practice
Fundraising Skills & Financial Reports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PGM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admin@pgmusa.org
전 화: (610)397-0484



시론

생각을 사로잡아야 한다.



원중훈 목사
(시카고 그레이스교회)

사람은 뜻을 세우고 실행하는 존재이다. 뜻을 세웠다고 모두 다 실행되는 것은 아니며, 실행된 뜻이 모두가 시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뜻을 세우면 일반적으로 어떤 결과에 도달한다. 그러나 뜻 세우는 일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하루아침에 뜻이 세워지는 것은 아니다. 많은 생각들을 담금질한 뒤에 소수의 뜻이 선다. 깊은 바다 속을 때려 부유浮遊하는 플랑크톤이나 빠르게 물러다니는 군집 피라미 떼처럼 편편片鱗이라 부를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생각들이, 하루에도 수 없이 우리 마음을 드나든다. '순간'이라는 시간의 길이만큼 아주 잠깐 왔다가는 생각이 부지기수이며, 뜻으로 자리잡으면 아니 될 것이기에 스스로 고개 흔들며 떨쳐내는 것도 셀 수 없이 많다. 썼다 지우는 자의적 반복이나 시행 이전의 사색행적도 보통 겪는 게 아닐 것이 분명하다. 그러다가 짧은 길든 시간이 흐르면 그 중에 비슷한 것끼리 뭉쳐 하나 둘 구체적으로 정리된 뜻으로 세워진다. 물론 뜻이 섰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세운 뜻마다 모두 결과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기에 많은 좌절을 겪는다. 시도하기도 전에 무너지는 뜻도 있고, 머리속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로 실행되는 것에 놀라 스스로 멈춰서는 뜻도 있을 것이다. 많은 뜻이 내적 좌절과 외적 도전으로 인해 구부러지거나 꺾이게 된다. 그리고 보면 사람마다 많은 생각들을 하고 살지만 어떤 결실로 이어지는 것은 참으로 소수라는 생각이 든다. 마치 귀소본능을 따라 자기 고향으로 오는 연어와 같다. 바다에 살던 연어가 자기 생명이 시작되었던 강으로 올라와 한 마리당 이삼천여 개의 알을 낳지만 그 중에 장성하여 다시 알을 낳으러 오는 연어는 극히 적다하니, 뜻이 결실로 나타나는 것이 이렇지 않을까 싶다.

시간적으로 짧은 세상, 그것도 지극히 제한된 자기자원(resource)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생각과 뜻이 결실로 이어지는 비율을 높여야 한다. 그것이 세월을 낭비(헛된 소비)하지 않고 사는 중요한 길 중의 하나이다. 쓸데없는 생각은 결실로 나타나도 쓸모없는 것들뿐이다. 그것들은 대부분 생각 초기에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겠지만 의도적으로도 비교적 일찍 차단하고, 가능한 흔히 말하는 '쓸모 있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한다. 사실 쓸모 있다는 말은 주의해야 할 말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생산적사고'라 부르기도 한다. 생각이 무엇인가 가지 있는 결과로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창출해내기에는 너무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며, 또한 인간의 인간됨이 결국 '생산력'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에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된 '복음적사고' 혹은 '성경적사고'이며, 그래서 비롯된 생각과 뜻을 품고 사는 것이다. 세상에 뜻이 많아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선다고 했으니,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뜻을 품고 살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크고 많은 것이 좋다는 세상에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며, 높고 유명한 것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쉽고 편안함을 만들어내는 세상에서 고난이라고 견디어낼 수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하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세상에서 너를 생각하며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리스도인은 홀로 있는 시간에 자기의 생각과 뜻을 돌아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생각하고 뜻을 세우는 초기 과정에서부터 자기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그래야 아직 오지 않은 결과까지도 미리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이 무색하지 않으려면 버릴 것 없는 생각만 하고 살면 될 것이고, 그러면 버릴 것 없는 결실을 이룰 것이다.

봄바람이 분다. 사람마다 교회마다 왜 그리 많은 생각들이 드나드는지 모르겠다. 무책임하게 '춘몽'이라는 한 마디 던져놓고 지나가는 자유로운 생각들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안될 것 같아서 스스로에게 외쳐본다. '우리에게는 복음적이며 성경적인 사고가 버릴 것 없는 생각이자 뜻이며, 그래서 비롯된 결실이 이 땅 사는 동안 이루어야 할 참된 생산이다.'

제 27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호스트
“금란교회” 역사와 부흥의 현장

김활란 박사의 '전도의 정신'과 4대 김홍도 목사의 '영혼구원 제일주의' 정신에 입각해 세계 최대 감리교회로 자리매김한 금란교회(동사목사, 김홍도 김정민)가 본지에서 개최하는 '제 27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호스트 한다. 전 세계 목회현장과 선교현장에서 지친 한인목회자들과 평신도 리더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금란교회의 시작과 발전, 현재를 돌아보며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말씀으로 재충전 받고 회복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기대한다.

금란교회의 시작

○...금란교회 이야기는 1957년 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0년도의 망우동은 공동묘지가 있는 곳으로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찾아드는 고달픈 인생의 종착지와도 같은 곳이었다. 지금은 신촌주막가와 교육지구로 변모한 곳이지만 당시엔 눈과 발이 대부분인 전원시골과 다름 없었다.

이곳에 자리 잡은 금란교회의 명칭은 이화여대 총장이었던 김활란 박사가 1957년 이화의 교직원과 학생들로 '금란전도대'를 조직해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전도를 시작한 데서 유래된다. 동년 7월 망우동(당시 망우리)에서 전도를 시작해 복음의 씨를 뿌리기 시작한 이들은 이듬해 1958년 11월 경기도 양주군 구리면 망우리 금란동산에서 15명의 천막교회를 짓고 10여명이 모여 첫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금란교회의 태동이다. 금란교회 초대 목사 최중권 목사는 1961년 5월 이화여대에서 기증한 부지에 24평의 성전을 건축했다.

김홍도 목사 부임

○...열악한 주변 환경 때문인지 김활란 박사를 기념해 세운 금란교회에 선뜻 지원하는 목회자가 없던 차, 1968년 2월 목사안수를 받은 김홍도 목사가 1971년 3월 망우리 금란교회로 부임했다. 김홍도 목사가 부임했을 당시는 24평의 교회건물에 교인 수는 약 75명 정도였는데 김 목사 부임 3개월 만에 성도의 수가 300명에 달했고 예배당 증축이 불가피하게 돼 30여 평을 증축, 50여 평의 성전을 마련했다.

이후로 교회는 날이 부흥했다. 예배당이 비좁아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자 1973년 대성전을 준공하게 된다. 그러나 교회당은 낡아 좁아만 갔다. 성도의 수가 15,000여명에 이르자 1982년 교회 맞은편에 위치했던 우성쇼핑센터 건물에 입주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2년여 간 건축 끝에 1984년 8월 연건평 2,500평 6,000석의 대성전으로 입당하게 됐다.

날로 부흥하는 금란교회



김홍도 감독



김정민 목사

○...금란교회를 이끌어 가던 김홍도 목사의 목회 방침은 '오직 영혼구원'에 있었다. 김 목사는 설교 때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

에 의해 12,400평 1만석의 성전건축을 결의하고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 1999년 12월 아름답고 웅장한 새 성전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은혜로운 첫 예배를 드렸다.



금란교회 예배 풍경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확실한 구원관을 전했다.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고 예배 때마다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금란교회의 특징이 됐다. 그뿐 아니라 많은 교인들은 밤 예배에도 몰려들었고 그 시간을 통해 김홍도 목사는 '성경강해를 이어갔다.

1984년 대성전 입당예배를 드린 후 모든 교인들은 더욱 전도에 힘썼다. 그 즈음 김홍도 목사는 해외로도 눈을 돌리게 되어 해외선교는 물론 수많은 국내 부흥집회 인도, 방송설교 등으로 이어져 김 목사의 설교가 국내외적으로 전해지면서 세계적인 교회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3번에 걸친 성전 재건축에도 불구하고 6,000석의 성전이 비좁아 어려움을 겪던 중 1994년 당회의 결정

세계적 교회로 확장

○...지난 2001년은 김홍도 목사가 금란교회 시무 근속 30주년이 되던 해였다. 그 해의 표어가 '성령 충만하여 주수하는 교회'였는데, 김 목

사는 총동원 주일이 아닌 '총력전도의 날'을 정했고 더욱 전도에 힘을 것을 제안했다.

"나도 한사람, 너도 한 사람"이라는 표어로 시작된 총력전도대회는 한 주일에 2000명에 달하는 새신자가 등록하면서 '10월 총력전도의 날'을 통해 일만명의 영혼구원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할렐루야!

영혼구원을 최고로 삼는 담임목사의 목회방침에 순종하며 오직 기도와 전도를 통해 금란 교회는 해마다 놀라운 부흥성장을 거듭했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교회, 올바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졌다.

한편 김 목사는 2007년 6월 라모스 전 필리핀 대통령과 함께 세계평화를 위해 헌신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세계평화상을 공동 수상했으며, 2008년 1월에는 한국일보에서 제정하는 2008 대한민국 종교그랑프리를 수상하게 됐는데 이러한 수상은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버지와 아들이 동역

○...이렇듯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금란교회를 섬긴 김홍도 목사는 2008년 김정민 목사를 담임목사로 세우고 일선에서 한발 물러나 동사목사로 추대를 받았다.

피의 복음과 십자가, 영혼들의 구원을 바탕으로 성장해 온 금란교회의 부르짖는 기도의 힘이 아버지 세대에서 아들세대로 자연스럽게 전달됐으며, 교인들은 혼돈과 갈등 없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세대교체라고 평가하게 됐다.

동사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김홍도 목사는 "원로목사라고 하면 교회와 너무 멀어지는 듯해서 동사목사로 죽을 때까지 담임목사와 같이 사역할 것"이라고 말한다. 혼자 하던 일을 둘이 하니 큰 힘이 되고 더 부흥이 된다는 것이 김 목사의 말이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8(광고국)
E-mail : la@chpress.net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편집국장서리:유원정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표)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 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2012 목회자의 날 기념

목회자 부부 영적 각성 세미나

성령이 임하시는 절정의 시간!

목회자의 영성이 깨어야 성도들이 살고 한국교회의 희망이 있습니다
해마다 4000여명이 넘게 참석하는 한국 최대 목회자 부부 세미나!

다이나믹한 기도의 능력과 불붙는 영성으로 한국교회를 깨우는 영적 대각성운동의 지도자 윤석전목사!
한국 교회에 복음적인 설교와 영적 부딪듯같은 목회정보를 통해 영성회복운동을 이끌어가는 김향안 목사!

잠든 이 시대와 한국교회를 향한 두 목회자의 처절한 외침이 여러분의 가슴을 뜨거운 소명감으로 불타오르게 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전혀 새로운 목회의 세계가 열립니다!!

강사: 윤석전목사, 소강석목사, 김향안목사

일시: 2012. 6. 4(월)~ 6. 7(목)

장소: 수원흰돌산수양관



윤석전 목사



소강석 목사



김향안 목사



수원흰돌산수양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새곡리 224
▶ 찾아 오시는 길 : 수원역에서 32번, 33번 발한행 버스(당하리 하차)
※차량운행 / 흰돌산수양관 입구(당하리) = 수양관
(월요일 오전 10시~ 오후 6시)

성회등록방법 | 등·록·비·무·료
1. 인터넷등록 | 한국교회정보센터 홈페이지(www.kcdc.net), 혹은 연세중앙교회 홈페이지(www.yonseil.or.kr)를 통해 등록
2. 인터넷 등록이 불가능할 경우 | 전화 1566-3004를 통하여 등록
※ 준비물 | 성경, 찬송가, 세면도구, 침구



소용차3대



최신형 노트북



복사기 외 다수

샌토럼 돌풍, 현실정치에 무릎 꿇다!

미 언론, 10일 전격 사퇴한 릭 샌토럼 후보의 정치적 의미 해석

공화당 대선주자인 릭 샌토럼 전 상원의원이 10일 경선 중도포기를 전격 선언했다. 샌토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펜실베이니아 게티스버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나의 대선 레이스는 이제 끝났고, 우리는 오늘부터 선거운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다"면서 오는 11월 6일 본선에서 공화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이길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치에서 소위 "기독교 우익"의 재건을 다져가는 주자로 발돋움한 샌토럼 후보의 전격적인 사퇴에는 바로 "현실 정치"의 벽을 넘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미 언론의 공통적인 분석이다.

대선에서의 본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화당 중도 진영은 계속해서 경선 2위를 달리고 있는 샌토럼 후보에게 사퇴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2008년 대선주자이자 원로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조차 예비경선 2위를 달리고 있는 릭 샌토럼 전 상원의원에게 '명예로운 퇴진'을 요구했다. 이는 11월 대선에 나설 후보를 인선하기 위한 공화당의 예비경선 과정이 장기화할수록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후보가 반사이익을 챙길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이었다.

대권 경쟁력 확보라는 분위기가 팽배해지자 샌토럼 후보는 10일 경선 중도포기를 전격 선언했다. 바로 대의원 수 열세와 대권에서의 경쟁력 즉 자금과 인력 동원 그리고 정치 신인이라는 점들이 작용했다.

미 언론은 한마디로 릭 샌토럼 후보의 약진을 보수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한다. 특히 정치적 신인이기에 갖는 정치 자금이나 인력 동원 등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금력과 지명도가 높은 롬니 후보와 경합을 벌여 11개 주에서 승리를 일궈냈고 수백만 표를 얻었기 때문

과 조직력 열세에도 불구하고 '발로 뛰는' 선거운동을 통해 바닥 표를 훔으며 선전했으며 중도성향이 강한 롬니 전 주지사에게 맞서 보수층을 겨냥한 전략으로 일각에서 '보수 대표주자'라는 평가도 받았다.

그러나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하는 대의원 확보 경쟁에



공화 대선주자였던 릭 샌토럼 전 의원의 사퇴를 발표하고 있다

의 요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그의 가족도 자리를 함께 했다.

2012년 공화당 경선에서 샌토럼 후보가 지금까지 "돌풍"을 형성하게 된 것은 바로 공화당내 기독교 복음주의 신자들이 중심이 한 '사회적 보수주의' 세력들의 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동성애자 결혼과 낙태 문제 등 사회적 이슈에서 강한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고 가족의 가치를 주

울을 설문 조사했다.

먼저 롬니 후보와의 대결 구도 시, 지지율은 한 자리 단위 싸움이다. 즉 52% vs. 48%로 오바마 대통령이 우세를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롬니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미지근한" 세력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롬니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 즉 오바마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유동층이라는 점이다. 결국 48%의 지지자들 중에서 2/3만이 롬니 후보의 부동층이기에,

미 대선, 진보와 보수 간 치열한 한판 승부 샌토럼 전격 사퇴에 오바마 적수는 롬니 확실시

이다. 결국 롬니 후보는 2012년 대선을 수년 전부터 준비하면서 막대한 자금력과 선거 캠페인으로 더 많은 대의원을 확보했지만 샌토럼 후보 진영은 보수적인 메시지로 유권자들을 마음을 움직였다.

샌토럼 전 의원은 공화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첫 경선 전인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 승리를 시작으로, 당 안팎의 예상을 깨고 초반 '돌풍'을 일으키며 롬니 전 주지사와 양강 구도를 형성해왔다. 특히 그는 자금

서 롬니 전 주지사에게 크게 뒤진 데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펜실베이니아 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도 패색이 짙어지면서 포기를 선언했다.

이날 CNN방송 집계에 따르면 샌토럼 전 의원이 지금까지 확보한 대의원 수는 275명으로 롬니 전 주지사(651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아울러 '3염색체성 18(trisomy 18)'이라는 선천성 장애를 앓고 있는 막내딸 이사벨라의 건강 문제도 중도포기

창해온 릭 샌토럼 후보만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삶과 함께 정치 현장에서도 실천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최근 바나 리서치의 설문 조사 결과도, 복음주의자들이 어느 정도나 샌토럼 후보를 지지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바나리서치는 만약 오늘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경우, 재선을 노리는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예비 주자 3명간의 지지

본선에서의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분석이다.

반면에, 샌토럼 후보와의 대결은 한마디로 박빙의 접전을 펼치는 것으로 판명된다. 일단 51%의 지지율로 샌토럼 후보가 49%의 오바마 대통령을 앞선다. 롬니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과는 달리, 샌토럼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한마디로 '일편단심'이다.

(7면으로 계속)

(2면에서 계속)

목회자세미나 후원 세 번째

○...본 자가 주최하는 세계 한인목회자 세미나를 한번 호스트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

데 이번이 세 번째다. 많은 물질과 기도를 동원해 기꺼이 호스트가 되어준 김 목사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기독교 계통의 미디어들이 자칫하면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하기 쉽습니다. 이단을 합리

화 정당화 시키는 오류도 범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미주크리스천신문은 정통보수신앙과 보수사상을 가지고 반공을 견지하고 나가므로 미주크리스천신문을 최대한 널리 발표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이라고 생각하여 미력하나마 세미나를 통해 여러분을 섬기고자 합니다. 부디 축복된 시간, 은혜로운 시간, 영적으로 도전 받는 시간되기를 바랍니다."

(이성자 기자)

"찾아가서 교회공동체 세운다!"

(1면에서 계속)

ELCA의 이러한 결단은 다른 주류교단에게도 즉각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즉 교회 개혁을 위해서 교단 법규를 과감하게 변경시켰다.

미국장로교회(PCUSA) 역시 제일 먼저 교단 법규에 관계없이 미전역에서 신학교를 졸업한 목회자들이 곧바로 교회 개혁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그 결과 루이스빌에서는 달리기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Sweaty Sheep), 피츠버그에서는 타투(tattoo)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문신을 새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Hot Metal Bridge)가 개척됐다.

이외에도, 수도원 운동을 표방한 새로운 수도원 교회들이 피츠버그(PCUSA), 오스틴과 시애틀(ELCA) 그리고 내시빌(UMC)들이 자리잡게 되었다. 여기에 미국성공회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디스코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보스턴에서는 노숙자를 위한 공동체를 그리고 라우데일에서는 라티노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이자 교회를 개척했다. 이 모든 교회들이 바로 최근에 안수를 받았거나 아직 안수를 받지 않은 목회자들에 의해서 개척된 것이다.

주류교단 신학교들 역시 교회 개혁을 강조하는 교과과정으로 신학생들을 교회 개혁을 위한 첨병으로 만들고 있다. 더 이상 불필요한 신학적 논쟁이나 성경 해석보다는 일초적 복음 그대로 지역사회의 얼마나 효과적으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노하우와 원리를 강조하고 있다.

패시픽루터란신학교(PLTS)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복음으로 사회적 정의를 이룰 수 있도록, 프린스턴신학교는 "신학적 해석학"을 통해 지역사회의 요구나 필요를 복음에 접목할 수 있도록, 세인트폴 루터신학교는 목회자들의 은사들을 분별하고 교회 개혁에 적절한 도구로 응용할 수 있도록, 신교학과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세인트폴 경우 M.Div과정 신학생들은 반드시 지역 교회 맥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리서치 해야 하고, 사회 과학의 방법론들을 익혀 지역사회 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고 있다.

주류교단 신학교들의 이러한 교과과정 변화는 바로 '패러다임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 즉 '70, 80년대 신학교 교육은 이미 기존에 있는 주류교단 교회들을 위한 교육이었다'라는 반성이다. 따라서 교회 행정이나 교육에만 충실했지, 전도는 더 이상 이들에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었다. 결국 고인 물은 반드시 부패하듯이 전도와 선교를 등한시

한 결과 주류교단은 계속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결과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교단과 신학교에서 전도를 강조하지 않는 한 교회성장은 불가능하다는 진리를 뒤늦게나마 절감하게 된 것이다.

피츠버그신학교는 심지어 신학교 교수진들까지도 이전에는 교회개혁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360도 달라졌다. M.Div 과정에 교회개혁을 위한 커리큘럼이 없으면 신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90년대 중반부터 교회개혁에 관한 커리큘럼을 도입한 피츠버그신학교는 이미 지난 100년 전부터 시작된 오순절교단이나 침례교회의 교회개혁원리를 도입해 가르치고 있다. 따라서 피츠버그에서 교회개혁으로 전공을 삼는 신학생들의 경우, 첫 번째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2주간의 인텐시브과정으로 전도학과 리더십을 끝내야만 한다. 그리고 신학생들은 반드시 자신들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선교적 경험을 완수해야만 한다. 실제로 한 신학생은 지역사회 커피숍에서 바리스타(barista)로 일하면서 지역사회 사람들의 관심사와 필요가 무엇인지를 리포트로 보고하기까지 했다.

마지막으로, 주류교단 내부 목회자들은 신학교 재학 여부에는 상관없이 지역사회에서 리더로 사역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지역사회마다 갖는 특성에 따른 신학교 교육이 아직까지는 충분하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어느 분야에서 리더로 자리잡은 사람이나 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성공회는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목회자를 훈련시키는 것보다 실제로 사역에서 열정을 다해 일하는 리더를 돕는 목회 즉 보스턴에서의 동성애자 커뮤니티(LGBTQ)나 플로리다의 라티노 이민자들을 위한 교회이자 커뮤니티 센터의 리더들을 돕고 이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시켜 안수하고 있다.

결론으로, 주류교단 관계자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회 개혁 추세가 바로 1세기나 2세기 전통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진단한다. 결국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시행착오나 실수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포스트모던이 좁이라는 시대상에 굴복하지 않고 원초적인 복음 그대로를 지역사회의 특성을 이해하고 찾아가서 삶을 나누어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따라서 주류교단은 더 이상의 신학적 논쟁으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고 전도와 선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대명령에 충실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알림] 다음 주는 정기휴간이므로 신문이 발행되지 않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Midwest 특징

-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에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 미국 체류비자 발급 F-1 Visa 발급(동반 자녀는 공립학교 무료교육)
- 수시 입학이 가능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토폴은 요구하지 않으나 ESL과정을 병행함)
-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인터넷 환경이 주어지면 가능
- 인터넷 환경이 잘 안되는 지역 혹은 어려운 조건에서는 별도 교육방법
- 지역별 교수의 만남을 통해 개인별 학업지도와 학업상담, 진로상담

Midwest 특징

-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에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 미국 체류비자 발급 F-1 Visa 발급(동반 자녀는 공립학교 무료교육)
- 수시 입학이 가능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Site:
7620 Little River Tnpk # 400, Annandale, VA 22003
Tel: (703)626-8712, (571)730-4750 wdc@midwest.edu

교육칼럼

Teaching Method 개발 문화에 의한 접근 방법 7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소장

존 듀이의 교육학설을 빌리지 않더라도 오늘날의 교육과 문화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 부모세대가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닐 때의 교육은...

우리 부모세대는 과학실습을 하긴 했는데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한 과정을 설명을 듣고 그대로 따라해 보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거의 80%가 때나고 대학을 졸업하면 거의 95%가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현실로 들어나고 있습니다.

은 많은데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죄가 될까? 아닐까? 내가 이런 일을 하면...

현대 교육 문화는 "Doing First, Thinking Next" 행동하는 신앙...체험 통해 터득하고 인식돼야 변화

이 시범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여러 그룹으로 나누고 테이블 별로 그룹마다 전기를 일으키기 위한 작업계획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 실패를 거듭하면서 결국 스스로 전기를 찾아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매일같이 살고 있는 학교교육의 현상이 이와 같을진대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교육을 담당하는 교회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처럼 옛날 옛적 이야기를 들려주듯 성경을 가르친다면 과연 아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그 말씀이 살아 있는 교훈으로 남지 않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변화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Doing First, Thinking Next"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육과 문화를 말해주는 가장 적합한 표현입니다.

리들이 끊이는 듯한 현상과 질식하게 하는 지루함으로 교회에 대한 친근감을 저하시키고 별로 즐겁지 않은 교회생활의 기억을 심어주게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어른들이 예배당에 가득 모여 긴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귀로만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느끼고 회개하고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삶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갖는 것과는 정말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어릴수록 집중하는 시간이 짧습니다. 5살-7살 정도의 아이들은 부동자세로 1분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 연령의 아이들은 움직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님 말씀을 듣게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그 지도자는 아이들 사역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아이들에게도 본인에게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아동심리학 아동들의 신체 심리학 인지발달심리학 등이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이 어른들이 은사체험을 하듯이 불리적인 흥내내기식 연습으로 마치 영적체험을 갖도록 시도하는 것입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SPC0316@yahoo.co.kr

Q: 한국인들은 결을 중요시하는 포장문화인데 비해 유대인들은 결보다 실속을 중요시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과연 어떻게 속을 튼튼하게 가꾸는지 알고 싶습니다.

A: 한국인들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포장 문화"입니다. 한마디로 속이나 내용은 어떠한 겉은 화려하게 꾸밈니다.

1) 민족정신이 결핍한 사람이 속이 비어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의 재산이 태산같이 많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유대인으로서의 민족정신과 긍지를 이어받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속이 빈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민족정신·신앙·지혜 없으면 속 빈 자

을 때 그것을 자기 자신에 대한 박해로 느끼고 아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교훈입니다.

2) 종교적 신앙이 없는 사람은 속이 빈 사람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 신앙은 민족의 생명이고 한사람의 영혼을 채워주는 양식입니다.

3) 지혜가 없는 사람이 속이 빈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단순히 지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는 다른 능력,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착상, 삶을 현명하게 설계하는 슬기를 말합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여름학기 본교강의안내

May 21-May 25 (5월 21 - 5월25일)

DI 802 Cultural Anthropology (문화인류학)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ter, Professor

PM 826 Current Theology Issues (현대신학동향)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Mark Soto, Professor

May 28-May 31 (5월 28 - 5월 31일)

DI 828 Methods of Social Research (사회조사방법론)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ter, Professor

PM 853 Strengthening Spiritual Vitality (영성강화)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John Teevan, Professor

필리핀 현지강의 안내

- 일시 : April 16-April 19(4월 16일-4월 19일) - 과목: PM 801 Leadership in Local Church(지역교회 리더십) - 교수: Dr. Jeffrey Gill(제프리 길박사) - 장소: 웨마선교센터(마닐라)

- 여성선교사 지도력 개발 세미나(Dr. Rachel Park:김정은 박사) - 일시 및 장소: April 17(마닐라), April 19(다바오)

본교 소개 및 특전

- 1. 74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2.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선교학 석사학위 전과목 온라인 강의 5.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 석사과정(M.A.) ● 석박사 통합과정 ● 박사과정(D.Min., D.Miss.)

선교학 석사학위를 인터넷으로

- 직장과 사역을 떠나지 않고 전과목 온라인 강좌 - 영어/한국어 강의 - 이수학점: 36학점 (12과목) - 대상: 목회자, 여교역자, 사모, 장로, 권사, 집사 - 특전: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선교학 박사과정 지원시 특혜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o.edu

총장: Dr. Ronald Manahan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S),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graco.edu, gtskoreanstudies@gmail.com

히스패닉·라티노 이민 출신국가로 불러 달라

퓨히스패닉센터, 스페니시 사용 미국인 정체성 설문 결과 보도



“히스패닉” 또는 “라티노”는 미국인들 중에서 스페니시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모국인 이민자들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명사이다. 지난 40년 동안 미국은 정부 기관에서 히스패닉이나 라티노 이민자들을 지칭하고 관리해왔다. 그러나 오직 24%만의 히스패닉 성인들만이 이 용어를 사용에 찬성하고 있고 대다수는 자신들을 자신들의 모국 이름으로 불러주기를 원한다고 최근 퓨히스패닉 센터는 보도했다(When Labels Don't Fit: Hispanics and Their Views of Identity).

남미나 중미계 미국인들은 자신을 히스패닉이나 라티노로 구분하기보다는 태어난 나라, 또는 미국계로 불러길 원한다. 푸에르토리칸, 엘살바도리안 등 출신국가 구분으로

불리길 원하는 사람이 많다. 퓨 히스패닉 센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50%는 자신이 히스패닉계나 라티노로 구분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오직 4분의1만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21%는 미국인으로 불러길 원했다. 왜냐하면 남미나 중미에서 태어났

다 하더라도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출신국가의 정치와 사회, 문화에 대한 경험이 없는데, 히스패닉이나 라티노로 구분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반면 1960년대 학생운동을 경험한 멕시코계는 정치를 반영해서 자신을 “치카나”로 불러주길 원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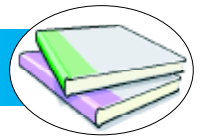
있다. 한마디로 멕시코 이민자들은 다른 남미계와 달리, 자신들의 고국인 멕시코에 대한 문화적, 정치적 자긍심이 상당하다.

미국정부는 1970년대에 멕시코와 쿠바, 중미와 남미 국가 출신을 히스패닉이라고 구분했다. 그러나 미국 남서부 국가 출신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1990년대에는 좀 더 광범위하게 라티노라는 구분도 추가했다. 그러나 그것도 정치, 사회 변화에 따라 충분하지 않다는 게 대부분 현재 미국에 사는 히스패닉과 라티노의 시각이다.

따라서 자신을 라티노나 히스패닉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중, 남미 출신들이 많다는 게 이번 조사 결과이다. 정치, 문화적인 차이는 물론 때로는 서로 전쟁을 치른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같은 히스패닉이나 라티노로 구분되길 싫어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을 서류미비 미국인이라고 구분하는 젊은이들도 있다.

이번 조사에서 공통점은 거의 모든 중미, 남미계 미국인이 미국에서 사는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이민자의 거의 80%는 또 다시 이민의 기회가 있다면 미국으로 이주할 것이라고 답했다.

책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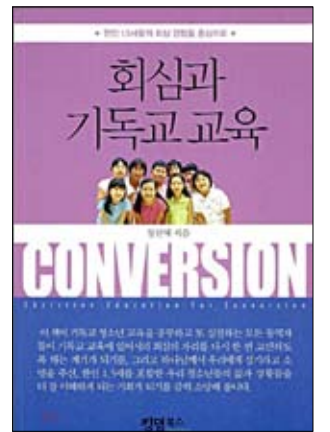


“회심과 기독교교육”

저자 정신에 박사

정신에 박사(트리니티 크리스천 칼리지 겸임교수)가 본지에 연재했던 “한인 1.5세 친구들의 회심 이야기”가 단행본으로 출간됐다. 책 제목은 “회심과 기독교교육”으로 “한인 1.5세들의 회심 경험을 중심으로”라는 부제를 달았다. 정 박사는 현재 본지에 “한인교회를 위한 기독교교육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연재하고 있다.

정 박사는 본지에 칼럼을 게재하면서 항상 강조했던 것처럼 “이 책이 기독교 청소년 교육을 공부하고 또 실천하는 모든 동역자들이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는 회심의 자리를 다시 한 번 고민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소명을 주신 한인 1.5세를 포함한 우리 청소년들의 삶과 상황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감히 소망해 본다”고 본지의 출판이유를 밝혔다.



한인 1.5세들의 회심 경험을 중심으로

본서를 추천한 장영훈 목사(본지 발행인)는 “정 박사의 연재가 한인 풍토사회에 인기 있는 주제였다”고 밝히고, “청소년들을 교회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회심이 이뤄져야 함에 동참한다”며 교회교육의 이론과 실재를 겸비한 학자 정 박사를 소개했다.

책은 첫 번째 이야기: 회심과 기독교 교육, 두 번째 이야기: 한인 1.5세들의 경험과 삶, 세 번째 이야기: 회심의 양상, 네 번째 이야기: 교회와 회심, 다섯 번째 이야기: 회심경험의 테마, 여섯 번째 이야기: 회심을 위한 기독교 교육, 일곱 번째 이야기: 한인 1.5세 회심교육의 현실적 이슈들로 나뉘어져 있다.

총 202페이지, 컷팅북스에서 출판했다.

저자 정신에 박사는 이화여대 기독교학과(대학원)를 졸업하고 도미, 칼빈신학교(M. C. E), 프린스턴신학교(M. Div), 가렛 이반젤리컬 신학교(Ph. D)를 졸업했으며 지난 11년간 미국에서 주일학교 및 청소년 EM 사역을 담당하면서 트리니티 크리스천칼리지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최근에는 귀국해서 한동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3면에서 계속) 따라서 51%의 지지자들 중에서 80% 이상이 대통령 선거 경선에서도 투표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결국 진보와 보수 양극간의 힘겨루기기에 미지근하게 중도를 표명하는 유권자는 폼니 후보에 비하면 작다.

따라서 바나 리서치는 오늘 민주당, 공화당 양당의 후보를 지지했다가 11월 대선 시에 지지하는 후보를 변경할 수 있는 가하는 설문에서 샌토럼 후보만이 오바마 대통령과 동등한 지지를 받고 있다. 김그리치 후보는 13%, 폼니 후보는 23%를 샌토럼 후보에게 뒤쳐진다.

만약 현재 공화당 경선 구도처럼 폼니 후보의 대세론이 탄력을 받아 대권 주자가 돼 오바마 대통령과 한 판 승부를 벌인다면 47%의 유권자

들은 11월 선거 당일까지도 지지도를 바꾸어 상대방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다는 결과가 흥미롭다. 한마디로 보수성향의 공화당 주자로서 폼니 후보의 차별성이 샌토럼이나 김그리치 후보에 비해 취약하다는 점이다.

복음주의적 크리스천들은 미 성인 인구 중 7% 정도에 해당되고, 언제든 지지하는 후보를 변경할 수 있는 유권자들 중에서 10%정도를 차지한다. 따라서 이들은 공화당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불과 3-5%만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결의를 보인다. 그러나 샌토럼 후보에게는 거의 70% 이상의 복음주의적 크리스천들이 불표를 던지고 있다. 그만큼 자신들의 신앙이나 이념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가로 샌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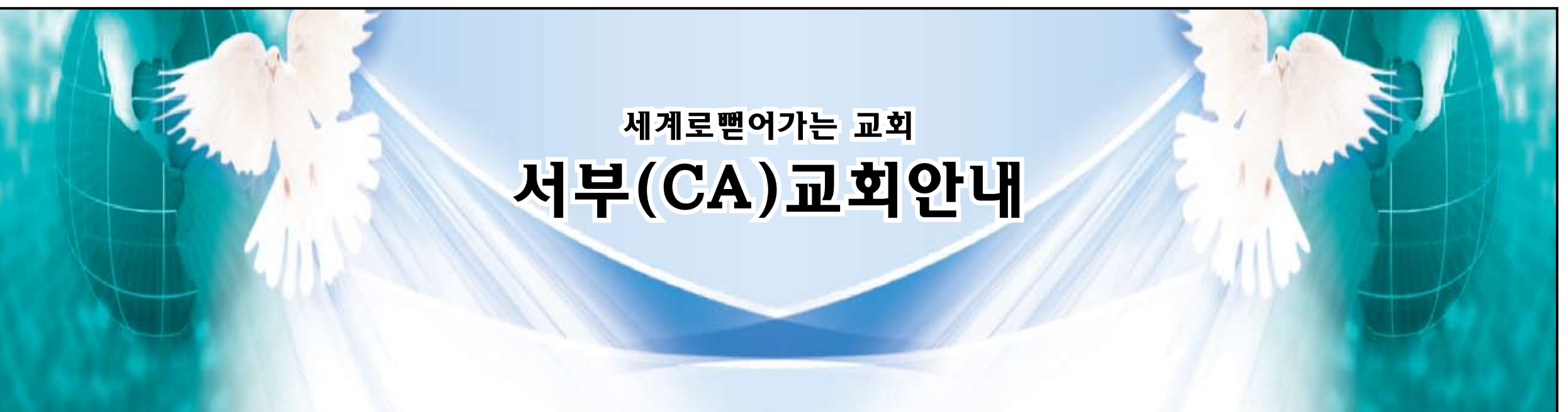
럼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 정치의 벽은 아직 샌토럼 돌풍이 무너뜨리기에는 높기만 하다. 즉 샌토럼 후보가 신인으로서 강세이긴 하지만 경륜이 부족하고 전국적인 인지도가 낮다는 점에서 행정경험이 풍부한 폼니 주지사가 민중의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11월 6일 치러지는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후보 간의 경합은 진보와 보수 간의 치열한 한판 승부가 된다. 공화당 일각에서 내놓고 있는 “본선 경쟁력”이 과연 주지사와 기업인으로서 성공한 폼니 후보에게 있는지, 아니면 공화당이 표방하고 있는 미국 정치의 보수적 이념이나 원리들을 실천할 수 있는 샌토럼 후보에게 있는지를 유권자들이 뽑기도

전에 현실 정치는 샌토럼 후보에게 사퇴를 종용했다.

그러나 제리 팔웰, 제임스 답슨 목사 등을 중심으로 미국 정치에서 ‘기독교 보수주의’ 또는 ‘기독교 우익’의 미래는 다시 새벽을 향해 진행되고 있다. 바로 신앙과 삶에서 신앙인으로서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성경적인 가치관들을 정치 현장에서 천명하고 있는 릭 샌토럼 후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 언론은 2012년 대선보다는 2016년 대선을 기약한다. 이제 더 이상 정치 신인이나 경륜 부족이라는 이유로 현실 정치에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현실 정치를 개혁할 수 있는 거인으로, 샌토럼 후보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평일영양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84 /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영양)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ialgcusa@yahoo.com / www.lalgc.com Tel. (323)913-4499 /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리문교회 담임목사 : 박형성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2:30 주일영양예배: 오전 10:00 찬양예배: 오후 3:30 Tel. (213)413-1600, (F) (213)413-1911 1825 Wilshire Blvd., L.A., CA 90057 www.laependoor.org	나성서부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후 5:45(월-금) 오전 6:00(토) Tel. (323)939-7323, (F) (323)939-1656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Pico/Fairfax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평일영양예배: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30 주일영양예배: 오후 1:30 EM, 대학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5:40(월-토) Tel. (714)826-6245, (F) (714)826-6187 8101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0	남가주주둔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학교: 오전 5:40(월-토)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Soildrock@gmail.com	남가주리더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후 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www.scrdm.com Tel. (213)215-8525, Fax. (213)977-1183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남가주사랑의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10 주일 3부예배: 오전 11:10 주일 4부예배: 오후 1:1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7:30 금요일예배: 저녁 8:0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등문교회 담임목사 : 최태우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포를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일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후 4:00 Tel. (213)559-7728 / Fax. (213)263-6102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 기도회 상담: 화-목 오전 10시부턴 -	드림교회 담임목사 : 이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9:30 영양예배: 오전 11:30 화요일예배: 오후 7:30 목요일예배: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626)793-0880, 0200 Fax. (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	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평일영양예배: 오전 6:30(월-토) 주일학교: 오후 7:30(토) www.samsungchurch.org Tel. (562)690-9800, Fax. (562)690-8044 501 S. Lido St., La Habra, CA 90631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영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 평안교회 담임목사 : 송정명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15 (청년부)4부: 오후 1:45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www.miloopeacechurch.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방주선교회 담임목사 : 박동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교사) 주일 2부예배: 오전 9:00(대인)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대인) 주일 4부예배: 오전 5:00(청년)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5738 Marconi Ave., Carmichael, CA 95608 Tel. (916)482-8800, 4960 / Fax. (916)482-5571 Web-site: www.arkmissionchurch.org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손인식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00(청년) 청, 장년영양예배: 오전 11:30 오후 1:30 Tel. (949)854-4010 / E-mail: bethe@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 임건택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오전 6:30(토) 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브리지교회 담임목사 : 장세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15 영양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Tel. (626)339-6177 1067 E. Badillo St., Covina, CA 91724	세계비전 교회 담임목사 : 김재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9:00 영양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15(월-토) Tel. (818)363-5887, Fax. (818)368-9883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14)446-8200, Fax. (714)446-82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새창조교회 담임목사 : 정병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10)325-0501, Fax. (310)325-4282 23814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안디옥장로교회 담임목사 : 지용성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30(영양) 주일 4부예배: 오후 1:45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금요일예배: 오전 11:00 Tel. (818)249-2871, Fax. (818)249-0516 www.laopc.org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 한중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45 주일 5부예배: 오후 4: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 엄영민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후 1:45 주일 5부예배: 오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14)891-2029 / Fax. (714)373-3097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 정성호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주일 4부예배: 오후 11: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2728 James M Wood Blvd., L.A., CA 90006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다문화)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후 8:00 Tel. (213)384-4272, Fax. (213)384-9838 634 S. Normandie Ave., L.A., CA 90005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 www.gracem.com Tel. (714)446-8200, Fax. (714)446-8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인랜드교회 담임목사 : 박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영양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30(토) www.inlandchurch.org Tel. (909)822-2324, Fax. (909)822-1480 1101 N. Glen Ave., Pomona, CA 91768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jc.org	창대교회 담임목사 : 이준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영양) 주일 4부예배: 오후 4: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www.gpc.com Tel. (909)388-2840, Fax. (909)388-2941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www.cornestonev.com / e-mail: pastor@aconerstone.com Tel. (310)530-4040(A),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15(EM)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청년) 장미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www.torrancecp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4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84. 왜 창조과학자의 주장은 학술지에 없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왜 창조과학자들의 연구 논문은 학술지에 없을까? 창조과학자들은 학술지에 발표되지도 못한 내용을 주장하는 비전문가들 아닌가? 창조과학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세상의 수많은 과학자들은 다 틀렸다는 말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다가 답을 못 얻으면 창조과학을 적대시 하게 되기도 한다. 이런 의문들은 과학과 학계의 상황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나온다. 과학 교과서에서 취급하는 내용에는 두 종류의 지식이 있다. 한 가지 지식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과학 지식이다. 이런 지식은 관찰가능(observable), 실험가능(testable), 반복실험가능(repeatable)한 지식이다. 이런 지식 덕분에 우리는 의약품이나 전자기기 등 과학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 교과서에는 이런 류의 과학 지식이 아닌 정보도 있다. 강조해야 할 부분인데, 신문이나 TV 등 미디어의 과학 기사나 교과서에는 관찰이나 실험 결과 즉 사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관찰과 실험으로 증명할 수 없는 진화론적인 설명들이 들어 있다. 전자의 지식을 실험과학(experimental science)이라 부르고 후자의 지식을 역사과학(historical science) 혹은 기원과학(origin science)라고 부른다. 진화론과 창조론은 관찰과 실험이 불가능한 역사과학이다. 실험과학에 대해서는 창조과학자들이건 진화론 과학자들이건 별 이견이 없다. 사실을 다루기 때문에 어떤 이론의 사실 여부를 현재 혹은 내일 실험을 통해서 확인(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실험과학적인 내용은 모든 과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게 된다. 실제로 이런 실험과학 분야의 연구에는 6일 창조를 믿는 창조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들이 Nature나 Science 같은 세계 최고의 잡지에 실려 있을 뿐 아니라 의학이나 공학 기술 분야에도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실제로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거의 모든 실험과학적인 지식은 창조론 과학자들이 알아낸 것들이다. 지난 50년 동안 진화론만 가르쳤던 미국이지만 아직도 창조과학자들의 수는 아무리 적어도 10,000명 이상 될 것이라고 한다. 실험과학을 하거나 기술 발전에 진화론은 전혀 필요가 없다.

과학자의 역사과학 논문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지난 2009년 11월 24일자 한 인터넷 신문에 "온난화 주장 학자들 '반대파 축출' 공포"라는 제목의 기사가 났었다. 지난 13년 동안 지구온난화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의 논문을 신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학계에서 밀어내려는 과학자들의 음모가 담긴 160페이지 바이트의 이메일이 해킹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런 음모와는 비교할 수 없게, 아예 공공연하게 창조론자 혹은 진화론 비판자들의 연구논문이 거절되는 것은 물론이고 어떤 연구자들은 직책에서도 해임되고 있다. 이런 현실이 "Expelled: No Intelligence Allowed"라는 기록 영화(2008년, DVD 구입가능)로 나왔을 정도다. 이런 이유로 창조과학자들의 역사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은 Journal of Creation, Creation Research Society Quarterly Journal 등 창조과학 전문지에만 발표되고 있다. 역사과학이란 것이 무엇이길래 실험과학 분야에서는 전혀 이견이 없던 과학자들이 창조과학자와 진화론과학자 두 그룹으로 선명하게 분

되었다. 결국 창조과학이 반(反)과학(anti-science)이 아니라 진화론이 반과학임이 드러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창조를 부정하는 진화론 쪽에 선다. 역사과학은 사실(실험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신학자들과 진화와 창조 전문가가 아닌 많은 과학자들은 다수의 과학자들이 틀릴 리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창조과학이 옳다면 그 많은 과학자들이 틀렸다는 말인데 그들이 보통 사람들인가?'라고 생각한다(창조과학자들도 박사학위 소지자들이라는 생각까지는 못하는 것 같다). 결국 성경에 근거한 창조과학의 설명이 훨씬 논리적이고 과학적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한 믿음을 버리면 사람의 생각인 진화론을 믿거나 성경과 타협을 시도할 수밖에 없게 된다. 속이는 자의 아비인 사탄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사탄이라고 충동질 한다. 반과학인 진화론을 사실로 가르치게 하고 그 새빨간 거짓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영성칼럼



이희녕 사모
(뉴저지복음장로교회)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두는 퍼즐피스

갈라디아서 6장 8,9절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 햇살이 따뜻해지면 각종 씨를 심습니다. 씨를 심을 때면 누구나 얼마 후면 심은 씨들에게서 싹이 나서 점점 커져 무성해져 있든다 따먹고 싱싱한 열매들도 따먹는 그림을 그려보며 기대합니다. 저는 요즘 온 비로 인해 앞채소들은 추추듯 무럭무럭 커져서 집에서 딱 오가니 채소 따먹는 삼대경에 빠졌습니다. 때 아닌 삶의 행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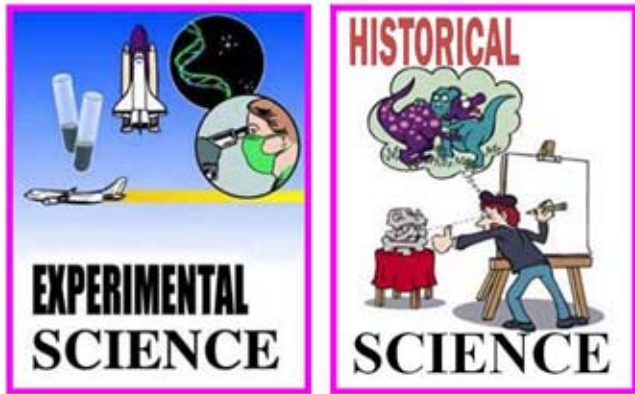
씨를 심을 땀 공심은 데는 콩이 나오 팔심은 데는 팔이 나오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씨를 심습니다. 늘 그대로 되었기에 이를 의심하는 이는 없습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지독한 허무주의에서 비판한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습니다. 그 때 세상적 안정된 삶을 바라보던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새로운 사람으로서 보너스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주님의 양떼를 찾아 돌보는 하나님나라의 선교사, 대사다"라는 정체성에 자리매김을 하였습니. 누구든 주님의 특정한 양으로 세워주려면 그들의 눈높이와 맞추고 함께하여 그들과 이웃이 됩니 첫 스텝이라는 사역 원리를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원 빵을 때리면 오른 빵도 내놓고, 오리를 먹되도 가게하면 10리를 거꺼이 가주고, 억울하게 대신 죄도 뒤집어쓰고 오후도 받으며 모욕을 당하는 것도 감내해야했습니다. 저들의 짐을 대신 져주었으나 오히려 선을 악으로 삼으며, 구해주시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원망하는 황당한 일도 너무도 많이 만났습니다. 사역하며 탈진도 부지기수로 했습니다. 작은 교회사모라고 무시도 많이 당했습니다. 물질의 손해도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가 적다고 이웃의 큰 교회로 가버린 이들이 자기를 돌봐줄 이는 사모님밖에 없다고 교회는 다시 오지 않으면서 진만 빼는 교인들에게 화가 나긴 했지만 "오죽하면 나를 찾으리" 곧 마음을 추스리고 오랜 세월 주님의 양로 쟁겨주고 돌봐주고 든든한 마음의 친구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저들이 성숙해져 세월이 가니 이웃의 작고 큰 교회의 기둥들로 세워져 은혜롭게 섬기는 것을 보며 감사드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습이 내 상이다"라고 칭찬해주셨습니다.

1976년 이후로 개척교회, 작은 교회만 섬기다 보니 안해 본 일이 별로 없고 결맞는 은사들이 개발되고 율인해 사용하는 바람에 '사역기계'(ministry machine)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율인한 사역 중에 EM 사역이 있습니다. 1976년 첫 교회에서 EM이라는 개념도 없을 때 EM을 시작하여 많은 어려움을 거머 지금까지 셀 수없는 EM사역자들을 상담하고 멘토가 되어주고 연합사역 등 여러 모양으로 2세 사역에 임하며 사랑을 주고받는 저들의 사모님, 대모가 되었습니다. 여러 사역에 다른 씨앗의 모습으로 복음을 심은지 이제 40년을 바라봅니다. 저들이 미국 전역과 세계만방으로 흩어져 참으로 든든한 복음 전파의 사역자들로 충성하는 모습을 대하며 긴 세월 과정은 험겨웠지만 주님께서 거두어들이는 열매들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엔 기쁨과 감사가 가득 넘칩니다.

만약 제가 작은 교회사모라고 주눅 들고 내 교회 키우기에만 치중했다면 오늘 설사 내 교회가 소위 대형교회로 성장했다더라도 이런 큰 열매를 거두는 기쁨의 날을 맞을 수 있었을까? 사역의 성취욕을 내려놓고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함이 하나님을 제일 감동케 합니다. 환절에 좌우되지 않고 내 교회라는 담장을 넘어 주님의 심장을 품은 헌신으로 살았기에 나이의 담장도 넘고, 인종의 담장도 넘고, 언어의 장벽도 넘어 많이 심을 수 있었지 않았겠나... 그러나 오늘 주님이 계속해서 거두어들이시는 열매를 함께 따는 게 아니던가. 주님의 복음의 씨앗은 썩는 것이 아니라 더디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충성하면 반드시 때가 오면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날이 옴을 증거하며 동역자 여러분들, 힘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교과서에 진화론만 들어있는 것과 같은 자연주의 원리로 진화론을 비판하거나 창조론 옹호하는 논문은 기각 당해"



창조론과 진화론 그리고 과학

실험과학이 아닌 창조론과 진화론은 모두 다 가정과 믿음에 근거한 과거에 대한 설명이다.

창조과학자들이 일반 학술지에 연구 결과를 낼 수 없는 경우는 그 내용이 실험과학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역사과학에 대한 경우다. 교과서에 실험과학 지식과 역사과학 지식이 들어 있는 것처럼 일반 학술지에도 실험과학 분야(section)와 역사과학 분야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 역사과학 분야에서는 성경을 옹호하거나 창조과학 혹은 지적설계(Intelligent Design)를 주장하는 연구 논문은 철저하게 배제되고 자연주의적인 설명만 수용된다. 교과서에 진화론만 들어가 있는 것과 똑 같은 원리(자연주의)로 진화론을 비판하거나 창조론을 옹호하게 되면 그 논문은 기각되고 만다. 그런 이유 때문에 Nature나 Science같은 세상 학술지에서는 창조

론되는 현상을 보이는 것일까? 역사과학이란 역사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는 반드시 믿음이 관여하게 된다. 증인도 없고 증거도 충분하지 않은 지나 간 역사를 설명하기는 무척 어렵다. 그러므로 많은 가정(믿음/세계관)이 들어가게 된다. 창조과학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증인이므로 성경을 기반으로 증거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거나 모델을 만들게 된다. 진화론의 경우에는 기적을 일으키는 존재인 하나님을 배제하고(자연주의) 사람이 경험했던 물질적인 지식으로만 역사를 설명하려고 한다. 그러나 창조자 하나님을 배제하고 만들어낸 설명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확실한 물질의 법칙인 역학 제 1법칙과 제 2법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비백이론과 진화론이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는 나리"(요8:38). 세상 아비 말에 귀를 기울인 많은 크리스천들마저도 진화론이 지지하고 있는 동성결혼을 찬성할 뿐만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사람이 없다고 지적하기까지 한다. 역사의 주인이시며 증인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역사가 환하게 보인다. 인간이란 무엇이며,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살기 어렵게 되었고, 왜 구원자가 필요하게 되었는지 너무나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성경을 떠나서는 내가 누구인지, 왜 이 세상은 부조리로 가득 차 있는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이런 중요한 질문들에 전혀 답을 할 수 없게 된다. 수십억 년의 긴 시간과 진화론에 묻든 갖가지 창조이론들도 앞에 언급한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바꿔버리거나 희미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러나 지구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각각의 믿음에 상관없이 지구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된 역사 단 하나만 사실이다. 모든 크리스천들이 반과학적이고 나쁜 열매들을 맺게 한 속임수 이론인 진화론 버리고 속히 돌아와 하나님 말씀을 사실로 믿고 그 위에 서기를 바란다. 교회의 참된 부흥은 진리로만 가능하다.

▲이메일: mailforwchoi@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안내

갑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부흥회: 오전 11:00 수일예배: 오전 7:00 수일학교: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8:00(월-목)	남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성철 주일부흥회: 오전 8:30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일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후 8:00	맨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 유 주일부흥회: 오전 11:00 수일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풍고매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부흥회: 오전 8:30 수일예배: 오전 11:00 수일학교: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문 주일부흥회: 오전 8:00(9월) 주일예배: 오전 11:00(9월) 수일예배: 오후 8:00 수일학교: 오후 8:00	델일교회 담임목사: 권용재 주일부흥회: 오전 7:00 수일예배: 오전 11:00 수일학교: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후 8:00(월-목)	보스톤장로교회 담임목사: 권병영 주일부흥회: 오전 11:00 수일예배: 오전 11:00 수일학교: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후 8:00(월-목)
볼티모어교회 담임목사: 이영철 주일부흥회: 오전 8:30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일예배: 오후 7:30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승표 주일부흥회: 오전 8:30 주일예배: 오전 11:00(9월) 수일예배: 오전 11:00 수일학교: 오후 7:30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부흥회: 오전 10:00 주일예배: 오전 11:15 수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8:00(월-목)	알라바마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부흥회: 오전 8:30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일예배: 오후 7:30 수일학교: 오후 8:00(월-목)	앵커리지델리안교회 담임목사: 유재업 주일부흥회: 오전 10:00 주일예배: 오전 11:30 수일예배: 오후 8:00 수일학교: 오후 7:00	앨파스델리안교회 담임목사: 하계수 주일부흥회: 오전 8:00(9월)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일예배: 오후 7:30	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윤권 주일부흥회: 오전 7:30 주일예배: 오전 8:30 수일예배: 오전 12:00 수일학교: 오후 7:30 수일학교: 오후 8:00
은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부흥회: 오전 11:00 수일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부흥회: 오전 8:00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일예배: 오후 8:00(9월)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후 8:00(월-목)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장 주일부흥회: 오전 8:00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일예배: 오전 11:00 수일학교: 오후 7:30 수일학교: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후 8:00(월-목)	큰무리교회 담임목사: 나병삼 주일부흥회: 오전 8:30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일예배: 오후 8:00 수일학교: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후 8:00(월-목)	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해근 주일부흥회: 오전 8:30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일예배: 오전 11:00 수일학교: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8:00(월-목)	타코마새생명교회 담임목사: 김규영 주일부흥회: 오전 8:00 주일예배: 오전 8:30 수일예배: 오전 11:00(9월) 수일학교: 오후 7:30(9월)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수영 1부흥회: 오전 8:30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일예배: 오전 11:00 수일학교: 오후 7:30 수일학교: 오후 8:00(월-목)
렘파장로교회 담임목사: 윤정용 주일부흥회: 오전 8:30 주일예배: 오전 11:00(9월) 수일예배: 오전 11:30 수일학교: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8:00(월-목)	하트포드제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부흥회: 오전 8:30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일예배: 오후 7:30 수일학교: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후 8:00(월-목)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지역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부흥회: 오전 8:30 주일예배: 오전 11:30 수일예배: 오후 8:00 수일학교: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후 8:30(월-목)	아가페선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부흥회: 오전 8:30 주일예배: 오전 11:30 수일예배: 오후 8:00 수일학교: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후 8:30(월-목)	에덴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정현 주일부흥회: 오전 8:00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일예배: 오후 7:30 수일학교: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8:00(월-목)	하와이 한국교회 담임목사: 김순곤 주일부흥회: 오전 11:00 주일예배: 오전 11:30 수일예배: 오후 7:30 수일학교: 오후 7:30(9월)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원우 주일부흥회: 오전 8:00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일예배: 오전 11:00(9월) 수일학교: 오후 7:00 수일학교: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중국정부는 탈북자 복송 전면금지하라!

LA 중국영사관앞 시위기도회 평화행진 300여명 참여

중국정부의 탈북자 복송 전면 금지 및 난민 협약준수 촉구를 위한 시위 기도회 및 평화 행진이 10일 오후 전 세계 50개 도시 중국 대사관 및 영사관 등 중국공관 앞에서 갖고 중국정부가 탈북자들의 복송금지 및 난민 협약준수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미국, 유럽,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열린 이번 공동 행사에서 나성영락교회 박희민 목사,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대표 송정명 목사, 워싱턴중앙 로교회 이원상 원로목사, 베델한인교회 담임자 KCC 대표간사인 손인식 목사 등이 중심이 되어 구성된 '해의 300인 목사단'과 탈북자 복송 전면 금지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참여하여 기도회와 함께, 피켓과 배너를 들고 중국 정부에 탈북자 복송을 전면 금지하도록 평화적 압박

을 가했다.

LA지역에서 열린 행사는 LA 중국영사관 앞에서 300여명이 참가해 중국정부의 비인도적인 처사에 대해 규탄하고 더 이상 비인권적인 탈북자 체포와 복송을 중단하고 세계 리더 국가의 책무를 다해달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행사는 한국어와 영어 등 이중언어로 진행됐는데 송정명 목사와 김성환 변호사의 개회사, 김인식 목사가 대표기도를 했으며 정유성 목사의 인도로 이날 참가자들이 함께 'Let My People Go!'를 불렀다.

이어 박희민 목사가 설교를 했으며 렌드밀러 씨와 김인식 목사가 1분 스피치를, 장창호 목사와 박병기 목사가 한인디아스포라 호소문을 낭독했으며 손인식 목사와 조철희 목사가 UN을 향한 호소문을, 김영빈

목사, 댄 남 목사, 김요셉 전도사가 '탈북자 송환금지'를 외쳤다.

이어 중국영사관 주변을 도는 평화행진을 가졌으며 통성기도 후 박희민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특별한 부활절새벽야외공연

매년 부활주일 새벽에 산타 클라리타 지역에 위치한 아구아 돌세 캐년(Agua Dulce Canyon)에서 열린



산타 클라리타 지역에 위치한 아구아 돌세 캐년(Agua Dulce Canyon)에서 특별 야외공연이 'A Living Hope Easter Sunrise Celebration Service' 라는 주제로 열렸다.



APU LA캠퍼스에서 열린 고 정진경 목사 도서 헌정식 행사에 참가한 이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아주사퍼시픽대 도서 헌정식 고 정진경 목사 소장도서 2천권 기증

아주사퍼시픽대학교(APU 총장 존월레스 박사)는 고 정진경 목사 도서 헌정식을 4일 오후 5시 LA 캠퍼스(디렉터 클로이 비니 박사)에서 고인의 유가족과 총장, 수석 부총장 등 학교스텝들, 그리고 허경삼 목사, 이기홍 목사 등 고인의 친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이번 헌정식은 고 정진경 목사가 APU와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장했던 도서 2천권을 APU에 기증하면서 갖게 됐다.

고 정진경 목사의 아들인 정인찬 목사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생 각하지 못했는데 돌아가신 후 아버지에게 많은 것을 듣게 됐다. APU에서 총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했다. APU 겸 임교수인 박희민 목사(나성영락교회 원로)는 "고 정진경 목사님은 한국교회 리더였고 신학자 목회자 설교가로 훌륭한 삶을 사셨다. 이번이 고인이 사용하던 도서가 기증되어 학생들이 책을 통해 기쁨을 기억하게 되고 고인을 본받아 좋은 리더로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서 기쁘게

는 특별 야외공연이 'A Living Hope Easter Sunrise Celebration Service'라는 주제로 부활주일인 8일 새벽 5시 1천여 명의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생생하게 진행됐다.

이날 공연은 크라운밸리커뮤니티 교회를 담임하는 조엘 무어(Joel Moore) 목사의 초청 메시지에 이어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의 주요사역과 고난과 부활을 현장감 넘치게 공연했다.

인근 지역 5개 미국인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 행사는 5개 교회 담임목사가 매년 교대로 초청메시지를 맡으며, 모든 출연배우는 각 교회 성도들 중에서 자원해 참여하고 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선교의 사명 마음에 새긴다”

HYM 제26회 남가주청년연합집회 21, 22일

남가주청년연합회(HYM, 회장 더글라스 김)는 오는 21(토)일과 22(주) 오후 7시 인랜드교회(담임 박신철 목사)에서 '사명'(Mission Possible)을 주제로 '제26회 청년연합집회'를 개최한다.

HYM 관계자들은 지난 5일 타운 내 소향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번 집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깨닫고 '내가 여기 있다'는 마음을



오는 21일과 22일 열리는 남가주청년연합집회를 소개하고 있는 HYM스텝들. 뒷줄 맨 왼쪽부터 시행방향으로 홍보담당 유영주 형제, 더글라스 김 대표, 행정담당 정정화 목사, 예배담당 이슬 자매, 특송을 맡은 최영준 자매.

젊은이들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선교의 사명을 마음에 새기려고 한다"고 밝히며 "이번 집회는 각기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찬양과 말씀, 그리고 기도로서 하나가 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불태우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집회의 강사는 1.5세 목회자로 동양선교교회에 부임해 분열했던 공동체를 눈물의 기도로 회복시키고 영예를 만들어 직접 설교하고 있는 박형은 담임목사와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12년간 청년부를 담당하며 젊은이들을 섬겨온 윤대혁 목사. 이들은 젊은 세대를 향해 뜨거운 가슴을 지닌 목회자로서 이시대의 청년들을 향한 도전의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글라스김 대표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주님에게만 향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결단코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수가 없다"고

말하며 "우리는 진정으로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야만 한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집회 특송은 5명의 한인 선교사 자녀들로 구성된 음반을 내는 등 의욕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크리스찬 밴드 '리빙 캔버스'와 2011년 CBS 창작복음성서제 미주에선에서 대상과 서울본선에서 금상을 받은 최윤영 자매가, 헌금송은 지난 2011년 MBC 방송국에서 개최한 오디션 프로그램 위대한탄생 출신 허지나 자매와 에스더최 자매가 각각 맡는다.

더글라스김 회장, 행정담당 정정화 목사(행복한교회 담임) 등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들고 영적으로 길 잃은 영혼들을 향해 갈 때"라며 "주위의 많은 친구들이 이번 집회에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714)393-5135, (323)459-9832

(박준호 기자)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글로벌

제7회 세계여교역자 선교대회 4월 19-26일

제7회 세계여교역자 선교대회가 오는 4월 19일부터 26일까지 7박 8일 동안 로스앤젤레스 소재 라마다나컨벤션센터(1901 W. Olympic Blvd)에서 개최된다.

이번 선교대회는 미주 지역에서 열리는 여교역자 선교대회로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동남아, 유럽 등지에서 목회하시는 여성 목회자와 여선교사, 여성 교제지도자 등 100여명의 여성 교역자들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온 땅이여 평안하라!'(사14:7)는 주제로 '민족 간의 평화, 사랑과 평화의 노래'를 주장하며 선교대회를 열게 된다.

이번 대회는 사단법인 국제여교역자협의회(대표회장 박금순 목사)와 미주기독교방송(대표 남철우 목사)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본 대회의 강사로 "제자임니까"의 저자 후

안 카를로스 오르티스 박사(셰퍼드신학 총장)를 비롯한 국내외 10여 명의 강사들이 강의를 맡는다.

또한 선교대회 기간 중 한인동포들을 위한 사라 코러스(단장 백사라 목사), 전예성 예술팀, 예빛 선교단의 각종 기독교 문화 공연 행사와 공동전통 패션쇼, 평화행진 등이 진행된다. 본 선교대회의 개최 예매는 4월 19일(목) 오후 7시 본 대회장에서 가질 예정이다.

국제여교역자협의회(대표회장 박금순 목사)는 2년마다 싱가포르, 마카오, 서울, 필리핀, 이란, 하와 이등지에서 선교대회를 개최했으며 제 8회 대회는 2014년 프랑스에서 개최 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213)383-6800 또는 이메일 lakcni@yahoo.com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세계여교역자 협의회)

(박준호 기자)



중국정부의 탈북자 복송 전면 금지 및 난민 협약준수 촉구를 위한 시위기도회 및 평화행진이 10일(화) 정오에 전 세계 50개 도시 중국 대사관 및 영사관 등 중국공관 앞에서 일제히 열렸다. 사진은 LA중국영사관 앞에서 평화시위행진을 하는 모습.



제76회 예장미주서부노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예장미주합동 서부노회 새노회장에 신상원 목사 제76회 정기노회, 부노회장에 강평근 목사 선출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합동총회 미주서부노회(노회장 지윤성 목사) 제 76회 정기노회가 지난 9일(화) 해돋는교회(담임 정갑식 목사)에서 개최된 신임 노회장에 신상원 목사(빌립보교회), 부노회장에 강평근 목사(부활교회)를 선출했다.

이날 신상원 목사는 "어려운 때 귀한 책임을 맡겨주신 하나님과 노회원에게 감사하다. 노회를 위해, 복음위해, 교회위해, 노회원들과 함께 노회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나타나도록 열심히 섬기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이날 노회는 신상원 부노회장의

인도로 개회예배를 시작, 광부환 회회록서기가 성경봉독을, 지윤성 노회장이 '주님의 항기를 받하사'(고후2:12-17)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으며 정갑식 증경노회장이 축도했다. 이어 임영호 부서기의 집례로 성찬예식을 가졌으며 지윤성 노회장의 사회로 회회에 들어갔다. 또 신상원 신임노회장의 사회로 폐회예배를 가졌다.

한편 오는 6월 12일(화) 오전 10시 예장미주합동총회가 같은 장소인 해돋는교회에서 열리게 되며 12일부터 14일까지 수양회가 개최된다.

(박준호 기자)

세계로 나아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안내		기쁨과 영광교회 담임목사: 정희수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6:30 새벽기도회: 오후 11:30 시계기도회: 오후 8:00(월-토) 오후 8:30(일)		낙원장로교회 담임목사: 황영진 주일1부예배: 오전 8:45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후 9:30 영양예배: 오후 8:45		
뉴욕셋째마리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6:30 새벽기도회: 오후 8:30 시계기도회: 오후 8:00	뉴욕중앙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6:30 새벽기도회: 오후 8:30 시계기도회: 오후 8:45	뉴욕빌라벨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6:30 새벽기도회: 오후 8:30 시계기도회: 오후 8:00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철 주일1부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6:30 새벽기도회: 오후 8:30 시계기도회: 오후 8:30	뉴욕순복음안다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6:30 새벽기도회: 오후 8:30 시계기도회: 오후 8:30(월-토) 오후 8:30(일)	뉴욕중부교회 담임목사: 김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후 8:30 시계기도회: 오후 8:45(월-토)	뉴욕주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6:30 새벽기도회: 오후 8:30 시계기도회: 오후 8:00(월-토)
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목사: 문철호 원로목사: 방지환 1부일부예배: 오전 7:15 2부일부예배: 오전 8:30 3부일부예배: 오전 10:15 4부일부예배: 오전 12:00 5부일부예배: 오후 1:30 6부일부예배: 오후 7:30 7부일부예배: 오후 8:30 8부일부예배: 오후 9:30 새벽기도회: 새벽 8:00(월-토)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박상희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6:30 새벽기도회: 오후 8:00(월-토) 시계기도회: 오후 8:00(일)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1부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6:30 새벽기도회: 오후 8:30 시계기도회: 오후 8:30	콩아일랜더성결교회 담임목사: 김희영 주일1부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전 12:30 수요예배: 오후 6:30 새벽기도회: 오후 8:30 시계기도회: 오후 8:30	메디안교회 담임목사: 장동관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6:30 새벽기도회: 오후 8:30 시계기도회: 오후 8:30(월-토) 오후 8:30(일)	어린양교회 담임목사: 김수백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후 8:30 시계기도회: 오후 8:30	유니온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박재현 1부 기도회(목요일): 오전 8:30 2부 기도회(목요일): 오전 9:30 3부 기도회: 오전 10:45 4부 기도회: 오후 7:30 5부 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후 8:30
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근 주일1부예배: 오전 12:30 주일2부예배: 오전 6: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후 8:30	주신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용익 주일1부예배: 오전 12:00 주일2부예배: 오전 2:00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후 8:30	중부뉴저지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원호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2:00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후 8:30	핀즈장로교회 담임목사: 박규성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전 12:30 주일3부예배: 오후 2:30	핀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철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후 8:30 시계기도회: 오후 8:30	한미음침교회 담임목사: 박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2:30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후 8:30 시계기도회: 오후 8:30(월-토) 오후 8:30(일)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들 찾습니다 L.A.: Tel: (323)985-0709 E-mail: hbs@chpress.com N.Y.: Tel: (718)856-4400 Fax: (718)856-0074
세계로 나아가는 교회 남미지역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허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후 8:4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후 8:00	브라질 새사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전 12:30 주일3부예배: 오후 2: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아르헨티나 제임교회 담임목사: 최병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6:30 새벽기도회: 오후 8:30 시계기도회: 오후 8:30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황희상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7:00 수요예배: 오후 6:30 새벽기도회: 오후 8:30 시계기도회: 오후 8:30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병근 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후 8:00 (1,2,3,4부 예배)

동부교계 게시판



제 3기 이민목회 멘토링 세미나

디아스포라이민목회연구원이 주최하는 제 3기 이민목회 멘토링 세미나가 4월 24일(화) 오전 9시부터 25일(수) 오후 6시까지 뉴욕 퀸즈한인교회(담임 이규섭 목사)에서 열린다. 강사는 손인식 목사(베델한인교회 담임). 대상은 이민목회자 20명으로 제한하며 참가비는 일인당 30달러. 접수마감은 4월 20일(선착순).

▲문의: (714)873-7315(김영빈 목사), (714)323-3931(류태우 목사)

정신건강 새 프로그램 개강

미동부생명전환(김정국, 김영호 목사)가 정신건강을 위한 새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분노 좌절 스트레스 조절교실: 5월4일-6월 8일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강사 이수일 박사 △건강한 부모교실: 5월 5일-6월 9일 매주 토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강사 이수일 박사 △사예군자교실: 4월 30일-6월 4일 매주 금요일 오전 9시30분-11시30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강사 최정자 선생. 모집인원은 각 12명씩 회비는 일인당 95달러. 장소는 162-13 43Ave #3B Flushing.

▲문의:(718)213-8645

퀸즈장로교회 여름학교 등록시작

퀸즈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가 운영하는 2012 여름학교가 등록을 받고 있다. 대상은 킨더가든부터 12학년으로 ESL반도 있다. 기간은 7월 2일부터 7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픈한다. 조기등록은 4월 20일까지이며 수업료는 일인당 600달러.

▲문의:(718)886-4646

중국은 탈북자 복송 전면금지 하라

뉴욕교협, 탈북자 복송반대 기도회/시위 및 서명추구

뉴욕교협(회장 양승호 목사)이 10일 중국대사관 앞에서 개최하는 '탈북자 복송반대를 위한 기도회 및 시위'에 참여했다.

"중국정부의 탈북자 복송 전면 금지 및 난민협약 실천추구를 위한 기도회/항의시위"라는 제목의 안전에서 교협은 "탈북문제는 우리민족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다"며 "이미 전 세계적으로 탈북자 복송반대라고 하는 연대와 연합이 이루어져 여러 형태의 항의, 기도회, 콘서트, 복송 반대 시위 등이 분출되고 있다"고 밝히고 "한국 교회뿐 아니라 각 대륙의 한인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열화와 같이 퍼져 나가고 있는 중"이라며 집회 참여 이유를 설명했다.

또 교협은 "우리가 모든 척 눈감고 있는 동안 지금도 중국 땅 어디서가는 탈북 우리 동포들이 죽음을 앞에

두고 눈물을 흘리고 공포에 떨고 있을 것"이라며 "방법은 하나, 우리가 나서서 중국정부의 저 비인간적 처사에 항의하여 전 세계인들의 눈을 중국으로 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참여와 서명을 당부했다.

한편 교협은 14일 금강산식당에서 탈북자 복송 반대를 위해 11일간 단식을 했던 박선영 의원과 함께하는 조찬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이날 회원교회들로부터 전달받은 탈북자 복송 반대 서명지를 박 의원에게 전달했으며 이 서명지는 UN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유원정 기자)

쏟뿌리 치유...예수님 성품묵상에 전념

'맑은 영성학교2' 개강, 강사 이희녕 사모

본지 필자이기도 한 이희녕 사모(뉴저지 복음장로교회)가 강의하는 '맑은 영성학교2' 뉴욕교실이 지난 5일 새순교회(담임 석중훈 목사)에서 개강했다. 이번 강의에서 "예수님의 성품묵상에 전념하겠다"고 밝힌 이희녕 사모는 '맑은 영성학교'의 신학노선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며 이번 강의는 '쏟뿌리 치유'가 주가 된다고 설명했다.

첫째 주는 '쏟뿌리'가 무성한 내면세계의 실상, 둘째 주 선악과 묵상/겨울 사고시스템과 진리 사고시스템 비교 셋째 주 무화과 잎새 묵



맑은 영성학교에서 이희녕 사모가 강의하고 있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절새벽연합예배

뉴욕일원 각 지역교회협 중심...뉴욕28, 뉴저지11 지역서

부활절인 8일 새벽 연합예배가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 등 뉴욕일원의 교회 주관으로 일제히 개최됐다. 뉴욕은 28개 지역에서, 뉴저지는 11개 지역에서 각각 열려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했다.

뉴욕교협 양승호 회장은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 "예수님께서 죽음의 어둠 권세를 이기고 생명의 빛으로 살아나신 이 기쁜 소식을 뉴욕과 미국, 전 세계에 전하자"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전쟁과 가난과 눈물을 이기게 하는 소망을 알게 되길 소원한다"고 말하고 "마지막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자"고 강조했다.

한편 매년 수백 명이 참석하는 사순절새벽기도회를 7일 새벽에 마친 퀸즈장로교회(박규성 목사)에서는 부활주일인 8일에는 장영춘 원로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환영하는 새벽 촛불예배가 열렸다. 장영춘 목사는 설교를 통해 "예수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자"고 강조하며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로 부활합시다"를 온 성도들과 함께 외쳤다. 이어 오전과 오후에 부활주일 예배가 드려졌다.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담임 이만호 목사)도 사순절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8일 새벽 5시30분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전 성도가 촛불예배를 드렸다.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회장 유재도 목사)가 주관하는 뉴저지 지역 부활절 새벽연합예배가 8일 오전 6시 11개 지역에서 동시에 열린다. 유재도 목사는 "뉴저지 지역 성도들은 가장 가까운 예배 장소로 참석해 교단과 교파를 넘어 사랑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기 바란다"고 참여를 독려했다.

지역별 설교자와 장소는 △1지역 설교: 김남수 목사 장소: 온누리장



퀸즈장로교회에서 열린 부활절새벽 촛불예배.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부활절새벽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기념촬영 했다(사진제공: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로교회 △2지역 설교: 국남주 목사 장소: 땅끝교회 △3지역 설교: 안명훈 목사 장소: 아폴라연합감리교회 △4지역 설교 정성만 목사 장소: 소망교회 △5지역 설교 박상돈 목사 장소: 예수마음교회 △6지역 설교: 목동주 목사 장소: 뉴저지순복음영산교회 △7지역 설교: 고석전 목사 장소: 영광연합감리교회 △8지역 설교: 소재신 목사 장소: 엘리자베스한인장로교회 △9지역 설교: 장동찬 목사 장소: 베다니연합감리교회 △10지역 설교: 이기백 목사 장소: 산돌교회 △11지역 설교: 나경직 목사 장소: 찬양교회 등이다(뉴욕지역은 본지 1378호 10면 참조).

한편, 뉴저지교협은 부활절 이후 9일-19일까지 사도바울 행적지 성지순례에 나선다.

(유원정 기자)

상/쏟뿌리의 시작 두려움 수치심 죄의식 등으로 12주 동안 계속되며 마지막 영광스런 사망자의 삶인 베드로 묵상으로 마쳐게 된다.

이 사모는 첫날 오리엔테이션 겸 개괄적인 소개로 영성학교의 사명은 에스겔 빠디라(탈진 사망자) 군대 일으키는 말씀치유사역이며 비전/목적은 인물묵상훈련을 통한 말씀을 내면화 하는 예수님 형상화라고 소개했다. 또 마음중심 다림줄은 예수님의 성품훈련으로 하늘 복의 통로가 된다고 설명했다.

뉴욕교협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12주 동안 계속되며 뉴저지는 10일 산소장교회(담임 조영제 목사)에서 시작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유원정 기자)

워싱턴DC 빈민지역 환경캠페인 출정식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자문회원기구인 GCS인터내셔널 워싱턴 지부와 평화나눔공동체(대표 최상진 목사)가 공동 주관한 '2012 유엔 지구의 날 불방학 환경캠페인'이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워싱턴DC 평화나눔공동체에서 열렸다. 캘리포니아, 조지아, 워싱턴DC, 해리스버그(VA) 메노나이트고교 등에서 참석한 한인 청소년들은 세미나와 워크숍 뿐만 아니라 빈민지역 화단 가꾸기를 통해 환경지킴이로서의 많은 역할을 감당했다.

참가자들은 국제 환경보호 캠페인은 물론, DC 빈민거리 청소, 거리 화단에 꽃 심어주기, 노숙자들에게 생수 나누어주기, 노숙자 급식, 지구환경자연학습, 유엔리더십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졌다. 이번 캠페인과 온라인 국제 환경보호 홍보 운동을 통해 참가한 학생들에게는 100시간의 지역사회봉사 활동 크레딧과 유엔 국제기구들이 주는 '유엔 NGO 리더십상'이 수여됐다.

한편, 평화나눔공동체는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매주 한 주간 단기간 교 및 국제자원봉사활동 캠프를 제

공한다. 여름캠프는 오는 5월 중순까지 접수를 해야 한다. 자세한 상담 및 신청문의는 (571)259-4937, 이메일 appachoi@gmail.com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평화나눔공동체)



출정식에 참여한 학생들



헬로십교회 비전채플 입당감사음악예배에서 제임스송 목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헬로십교회 비전채플 입당감사음악예배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헬로십교회(담임 제임스송 목사)가 설립 31주년을 맞아 지난 25일 비전채플 입당 감사예배를 드렸다. 올해 사역 40주년을 맞는 담임 송 목사는 미드웨스트대학교 설립자이기도 하다.

이날 예배 설교는 미드웨스트대학교 미주총동문회 회장 강대혁 목

사(테네시 새에덴교회 담임)가 했으며 강성일 브라질 선교사(세계한인선교사회 상임대표회장)를 비롯 한국의 율항기 목사 등이 축하전문 및 화환을 보내기도 했다.

음악은 미드웨스트 출신의 성악가들과 동 교회찬양대가 담당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CZONE 창간 3주년 기념

New York Classical Symphony Orchestra

2012 <뉴욕나눔의집> 후원

자선음악회

Violinist Jane Kim

나눔의집

주관: 나눔미션 NANOOM MISSION INC.
 주최: CZONE 씨존
 특별후원: 뉴욕 클래식 심포니 오케스트라(NYCSO), SIA NY(국제예술가협회)
 후원: 한국일보, 중앙일보, 뉴욕일보, 라디오코리아, KCBN, KCTS, WMBC-TV, TKC, MKTV, KBN, KABA(KBSI) 기독뉴스, 미주크리스천신문, 크리스천헤럴드, 기독교보, 교회일보, 에센넷, 뉴스메이커, 뉴스한국

일시: 2012년 4월 29일 (일) 저녁 6시
 장소: 후러싱타운홀 137-35 Northern Blvd., Flushing, NY

* 연락처 | (516)662-9322, (718)539-9090 (347)559-3030

초청인사
 뉴욕교협회장, 뉴욕목사회장, 뉴욕현인회장, 퀸즈한인회장, 민주평통회장, Grace Meng 하원의원 Peter Koo 뉴욕시의원, 뉴욕총영사, 뉴욕한국문화원장, 평화나눔공동체 대표

“부활이 주는 은혜에 참여하라!”

남가주 10개 지역 일제히 부활절 연합새벽예배

남가주지역의 부활절 연합새벽예배가 부활주일인 8일 새벽 LA와 오렌지카운티 등 10개 지역에서 일제히 개최됐다.

동양선교교회(담임 박형은 목사)에서 남가주교협(회장 변영익 목사) 주최로 새벽 5시30분에 열린 LA지역 연합새벽예배는 수석부회장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시작, 이정현 목사(나성서부교회/부회장)기도, 정충일 목사(사기/새일교회) 성경봉독, 남가주장로성가단(단장 정도영 장로) 특별찬양에 이어 변영익 목사(벤엘장로교회)가 ‘부활이 주는 은혜’(요11:23-27)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변 목사는 “경제 불황으로 사업이 무너지고 집이 차압당하는 등 동서 사방이 막히는 절망감으로 한숨소리 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부활의 아침 어둠과 고통이 물러나고 새 생명의 빛이 온 누리를 평화롭게 했듯이 절망가운데서 믿음가지고 나아가면 소망 가운데 빛을 발견하게 되고 축복의



남가주지역 부활절새벽연합예배가 10개지역에서 열렸다. 동양선교교회에서 열린 LA지역 연합예배에서 합심기도하고 있는 교인들(왼쪽 위) 창대교회에서 열린 샌버나디노카운티지역 연합예배에서 설교하고 있는 김성일 목사(오른쪽 위) 베델한인교회에서 열린 OC지역 연합예배에서 찬양하고 있는 연합성가대(아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특별기도 시간을 갖고 박효우 목사(부회장/풍성한교회)가 ‘미국의 신앙부흥과 경제 부흥을 위하여’, 엄규서 목사(부회장/

월서크리스천교회)가 ‘조국의 평화와 민족통일을 위하여’, 정요한 목사(미주베델교회/남가주연목회회장)가 ‘이민교회의 부흥과 이민사회의 번영을 위하여’, 정우성 목사(부회장/남가주광명교회)가 ‘동포사회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각각 기도를 인도했으며 진유철 목사의 인도로 이날 모인 전

교인들이 합심기도를 했다.

이어 신연성 LA 총영사가 축하인사를, 박형은 목사가 환영인사를 전했다. 박종대 목사(남가주중앙교회/증경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이날 OC지역은 베델한인교회(손인식 목사)에서 OC교협(회장 엄영민 목사) 주최로, LA동부지역은 선한목자장로교회(고태형 목사)에서 동부교협(회장 김민섭 목사) 주최로, 중부 지역은 중부교협(회장 광소건 목사) 주최로 감사한인교회(김영길 목사)에서, 벤츄라 지역은 벤츄라교협(회장 최상훈 목사) 주관으로 카마리오연합감리교회(이상영 목사)에서, 샌퍼난도밸리 지역은 샌퍼난도밸리교협(회장 류재덕 목사) 주최로 벨리연합감리교회(류재덕 목사)에서, 인랜드 지역은 인랜드교협(회장 박해성 목사) 주최로 인랜드노리교회(마원철 목사)에서, 싸우스베이 지역은 싸우스베이목사회(회장 김광중 목사) 주관으로 토랜스제일장로교회(김준식 목사)에서, 샌버나디노 지역은 샌버나디노교협(회장 김성일 목사) 주관으로 창대교회(이춘준 목사)에서, 샌디에고 지역은 샌디에고교협(회장 강용훈 목사) 주최로 샌디에고 북쪽 지역은 팔로마한인교회(서명성 목사)에서, 남쪽 지역은 한빛교회(정수일 목사)에서 각각 예배를 드렸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갯즈패밀리교회 설립2주년 기념행사

갯즈패밀리교회(담임 유대호 목사 6551 Western Ave, Buena Park CA)는 교회설립2주년 기념 부흥회 및 안수집사 임직예배를 22일(주) 오후3시에 개최한다. 부흥회 일정은 20일(금)부터 22일(주)까지이며 강사는 정기영 목사(텍사스 어스틴 늘푸른교회 담임) ▲문의: (714)386-6491

온하늘교회 설립감사예배

온하늘교회(담임 연제선 목사, 2109 Chickasaw Ave, LA, CA)는 교회설립 감사예배를 22일(주) 오후5시에 개최한다. ▲문의: (213)220-9001

미주평안교회 설립37주년 기념부흥성회

미주평안교회(담임 송정명 목사)는 오는 19일(목)부터 22일(일)까지 교회설립 37주년을 기념하는 부흥성회를 개최한다. 강사는 임형태 목사(플로리다도스프링스 한인장로교회 담임). ▲문의: (213)381-2202

‘다시 체험하자 성령을!’

벤엘장로교회 피종진 목사초청 춘계부흥성회

벤엘장로교회(담임 변영익 목사)는 피종진 목사초청 춘계부흥성회를 5일부터 7일까지 개최했다. 금요일 저녁 벤엘찬양팀의 찬양 인도와 변영익 목사의 사회로 열린 집회는 이성순 장로가 기도를 했으며 피종진 목사가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리라”(겔36:26-2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피종진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인해 주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며,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성공을 생각한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럴 가운데 누가 큰지를 놓고 다투었으며 오늘날에도 누가 더 부유하고 학식이 많으며 더 많은 명예를 가졌는지를 삶의 표

준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세상적 기준으로 높음을 논할지라도 우리의 표준이 아닌 하나님의 표준으로 살아가며 미래를 계획하고 전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집회는 목요일 저녁 ‘일어나 걸으라!’(행3:1-10), 금요일 새벽 ‘내게 구하여라 할지라!’(겔36:33-38), 토요일 새벽 ‘기도의 위력’(행 2:31), 토요일 저녁 ‘요단을 건너라!’(수3:5-8)라는 제목으로 피종진 목사가 설교했다. 특별히 토요일 저녁집회는 자녀들을 강단에 불러 모은 뒤 피종진 목사와 변영익 목사가 그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한인목사회에서 주관하는 한미기독교회관 건립을 위한 일일식당 개최식에서 관계자들이 리본커팅을 하고 있다.

한미기독교회관 건립위한 일일식당

남가주한인목사회, 3년 계획 한미은행에 어카운트 개설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김영대 목사)는 한미기독교회관 기공마련을 위한 일일식당을 9일부터 17일까지 남가주지역 북장동순두부와 LA 한인타운 내 다호칼비에서 일제히 개최했다.

9일 오전 10시30분 김영모 수석 부회장 사회로 북장동순두부 웨스턴점에서 열린 일일식당 개최식은 이유용 부회장이 기도, 김영대 회장이 인사말씀, 리본커팅으로 이어졌다.

김영대 회장은 “남가주목사회가 큰 포부를 갖고 한미기독교회관 설립을 위해 본격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남가주의 여러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기도하며 협력하고 동참하길 바라며 이 일이 좋은 열매로 맺어지도록 격려와 도움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유재승 한미은행 행장은 “남가주목사회 임원들로부터 회관건립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한미은행이 회관건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목사회가 이번 사업을 위

해 저희은행에 계좌를 열었다. 이번 사업이 완성 될 때까지 참여하며 협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미기독교회관건립의 취지와 목적은 △원로목회자들의 보급자리 역할로 사용 △교회가 없는 무인목회자들의 예배처소로 사용 △갑작스런 소천 등으로 홀로된 홀사모들의 보호단체로서의 기능발휘 △불의의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한인 아이들의 보호처소로 역할담당 △각국으로 떠나는 선교사들의 언어 및 문화습득훈련장소 및 해외선교사 미국 방문시 안식처 △6천여 목회자들이 함께 나누는 상호회 구성 스이민기독교 역사박물관 등이며 3년 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5백만 달러로 잡고 있으며 기존의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 할 계획이다. 이번 일일식당은 당초 9일과 10일 양일간 갖기로 했으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 할 것으로 예상돼 13일까지 5일간 오픈했다. (박준호 기자)

“중재자 통해 제3의 길 찾으면 생산적”

풀러신학교 갈등전환 세미나 60여명 참석

풀러신학교(총장 리처드 마우 박사) 갈등전환세미나가 지난 2일 오후 4시 LA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공동대표 허성규, 홍진관), 메노나이트교단 서남부 지역 컨퍼런스, 풀러신학교 한인학생회 공동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갈등중재와 관련해 국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데이빗 옥스버거 교수(풀러신학교 목회상담학)와 갈등전환 전문가인 오상열 목사(기독교평화센터 소장)가 강사로 나섰다. 약 60여명의 목회자, 교회 지도자들이 참석하여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데이빗 옥스버거 교수는 “갈등은 인간관계에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선택에 따라 갈등은 관계를 깨는 위협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전환을 위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교회의 갈등상황에 처한 이들은 자신의 입장에 따

라 한 쪽 면만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쪽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중재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중재자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넘어서는 제 3의 길을 찾을 때, 갈등은 생산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상열 목사는 “오늘의 많은 교회들이 갈등과 분쟁으로 아파하고 상처받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그러한 갈등을 쉬쉬하고 숨길 때 악화될 뿐이며, 오히려 그 갈등을 드러내고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성경을 갈등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수많은 갈등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성경을 통해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잘 배울 수 있으며, 우리의 교회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풀러신학교에서 열린 갈등전환세미나에서 데이빗 옥스버거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벤엘장로교회에서 열린 춘계부흥성회에서 피종진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SAINT MISSION UNIVERSITY

목사 · 선교사 후보생 장학생 모집

www.saintmu.us

3407 W 6th St, # 705 Los Angeles CA 90020
213-251-0191, 213-514-0037 saintmu10@gmail.com

Since 1999 **HYM** 남가주한인목회회 www.hym.cc

QR Code

IMAGINATION IS POSSIBLE

제26회 남가주청년연합집회

But my life is worth nothing to me unless I use it for finishing the work assigned me by the Lord Jesus the work of telling others the Good News about the wonderful grace of God. [Acts 20:24]

일시: 2012년 4월 21일(토), 22일(주일) 오후 7시

장소: 인랜드교회 (Inland Church)

강사: 첫째날 윤대혁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부목사)
둘째날 박형은 목사 (동양선교교회 담임)

HYM : T 714.393.5135(Douglas Kim 대표), 323.459.9832(전경희 목사) / hym21c@hotmail.com
 인랜드교회 : T 909.622.2324 /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 www.inlandchurch.org

이슬람 뉴스

이슬람연구네트워크에서는 3월 3주간과 4주간 조지아, 카타르, 태국 등지를 방문하여 일반적인 선교와 더불어 이슬람 선교에 대한 현황을 나누는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슬람 세력이 눈에 띄게 확장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무장화와 무력의 사용도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네트워크 안에서 연구된 내용들을 나누며 새로운 정황들을 알 수 있도록 기도와 재정으로 함께 해주신 동역자 여러분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조지아(Georgia) 상황

첫 번째 방문지는 그루지야로 더욱 많이 알려진 이 나라의 정식명칭은 조지아(Georgia)이다. 실제 그루지야는 러시아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기 때문에 조지아의 대통령이 그루지야라는 호칭을 하지 말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도 있다. 조지아라는 이름은 4세기경 히랍정교회를 전한 성자의 이름에서 국가명이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부정부패가 전혀 없는 것을 무척 자랑스러워한다. 현지에 갔을 때, 경찰서의 사면이 유리로 되어 있었던 것이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조지아에서 부정부패 혐의의 조치가 되면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한다.



인들에게까지 좋은 영향력을 미치며 결국 중앙아시아 교회성장의 밑거름이 된 것이다.

아제르바이잔(Azerbaijan) 상황

조지아와 달리 100% 이슬람 국가인 아제르바이잔은 약 100명의 선교사들이 선교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주로 초교파 선교단체들의 평신도들이 대부분이다. 미국 선교사에 의해 시작된 유일한 신학교는 5명의 신학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현지 그리스도인들과 선교사들은 드러내놓고 선교활동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공식적으로 인가 받은 교회가 10개 가량이지만 현지화까지는 거리가 멀다.

현지력으로 신년을 맞이한 아제르바이잔 선교사들은 자국에서 선교모임을 갖는 일이 어려운 까닭에 버스로 국경을 넘어 인근 국가인 조지아에 모여 세미나를 가졌다. 초청 강사로 참석한 필자(전호진 총장)가 "한국 교회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방향"에 대한 강연과 이슬람 특강을 진행했다. 또한, 해당 모임에서 한국 교회의 선교비 감소로 인한 선교 위축과 선교사 자녀들의 교육 인프라가 확보되지 않아 생기는 어려움이 다루었다.

카타르(Qatar) 상황

인구 5백만 명의 조지아의 주요 종교는 히랍정교회이며 83.9%를 차지하지만 이슬람교도 9.9%를 차지한다. 히랍정교회의 경우, 성자나 성지 등을 찾아가 성호를 긋고 동상에 키스를 하는 등 미신적 요소들이 강하다. 주로 높은 담장 안에 위치한 성당과 수도원을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전쟁 발생 시 성당이나 수도원이 적으로부터 몸을 숨기는 곳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이슬람교도의 경우, 주로 인접 국가인 아제르바이잔에서 이주한 70만 명이 주종을 이룬다. 현재 조지아에서 모슬렘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사는 단 한 가지뿐이다. 물론 나머지 종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신교 선교사의 숫자도 극소수이다. 여러모로 조지아에서의 개신교 선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인구 30만 명의 카타르는 1인당 GDP가 30만 달러에 달한다(UN 공식집계)는 10만 달러). 모든 노동자들은 인도, 파키스탄, 이집트 등지에서 온 이민자들이며 약 150만 명이다.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교회는 약 10개이다. 사회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자유롭지만 개신교 전도나 선교는 쉽지 않다. 소수의 선교사들만이 드러내놓고 선교 활동을 벌이고 있다.

요즘 카타르 항공사에 여 승무원으로 지원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약 200명의 한국인 여승무원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는데 애초에 우려했던 무슬림으로의 개종은 생각만큼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여승무원들은 주일을 이용해 카타르 내 자국민 교회를 방문하는 등 비교적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다. 2024년 월드컵 유치를 위한 노력 등 여러 면에서 국제적인 허브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는 카타르는 이슬람 선교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액션들을 취하고 있다.

태국(Thailand) 상황

그러나 인접 국가인 카자흐스탄의 경우, 수백-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들이 있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교회들 중 일부는 이미 외국 선교사들이 추방되기 전 현지인에게 교회의 운영이 위임된 상태라는 것이다. 이러한 바람직한 사례의 기반에 '까레스끼'로 알려진 고려인들이 있었다고 한다. 2차 세계대전 이전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한국인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현지



러시아에서 신학을 하고 돌아온 조지아 목사, 통신으로 M.Div 수업을 희망하고 있다.



95%의 인구가 불교도이고 약 4-5%가 무슬림인 태국에서 주된 무슬림 거주 지역은 남부이다. 필자는 남부 핫야이 주에서 열리는 이슬람 선교사 대회에 참석하여 "캄보디아와 한국의 이슬람화"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캄보디아와 한국에서 금용을 매개로 빠르게 확산되는 이슬람 세력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한 부분에 많은 참가자들이 공감하였다. 해당 대회에는 말레이 반도에서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10개국 선교사와 현지인 교회 지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약 100명가량 되었다. 신학적, 학술적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이슬람을 연구하고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연합의 기회들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었다.

3월31일 정오, 회의를 마치고 캄보디아 출국을 위해 회의장에서 떠난 지 한 시간이 흘렀을 때 회의장 인근 다른 호텔에서 무슬림 세력들에 의한 폭탄 테러가 일어났다.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회의장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한 제일 좋은 호텔이었다. 이 테러로 말레이시아인을 비롯 3명이 사망했으며 지금까지 400여명의 관광객과 현지인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인접한 다른 주에서도 두 차례의 폭탄 테러가 더 있었는데 이 테러로 11명이 사망하고 120여명이 부상당했다. 외신들은 이슬람 반군 테러로 추정하고 있다. 그동안 소규모 공격은 종종 있었지만 이와 같은 대형 테러는 처음이라고 한다.

프리에우판 다파프 태국 경찰청장은 "폭탄이 난 방식과 짧은 주기로 보아 3건의 폭탄테러가 동일 세력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앙락 친나왓 태국 총리는 "누구 소행인지 이미 파악했거나 원활한 수사를 위해 현재 단계에서는 밝힐 수 없다"고 발표했다. 사건 지역은 불교계가 다수인 태국 내 다른 지역과는 달리 무슬림계 말레이족이 집단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이 분리 요구를 주장했던 2004년 이후 폭력 사태가 끊이지 않아 5천여 명이 희생됐다.

(이슬람 연구 네트워크)



선교지 편

멕시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2012년도 주어진 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며 이 일에 동역해주신 교회와 온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을 문안드립니다. 저희들은 2012년 1월 9일부터 12일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개최된 남미 성경묵상 사역 선교사 모임을 시작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도구로 힘쓰고 있습니다.

에스라 성경학교 등록

지난 1월 수련회를 마치고 멕시코에 도착해 집을 풀고 바로 올해부터 개강하게 된 "에스라 성경학교" 등록 접수를 받았습니 다.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 부족한 것도 많지만 26명 정규 학생과 6명 청강생으로 첫 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 가운데 현재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과 사모님,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과 복음의 열정을 품고 헌신하고자 하는 젊은 청년들까지 한 자리에 모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녁에 시간관계로 공부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다음 학기부터는 오전반도 실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일기에 더욱더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성경세미나

"에스라 성경학교" 사역 외에 평일 또는 주말 오전이나 저녁시간을 통해 현지 교회를 방문하여 여러 세미나도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월 19일부터 3월 25일까지 Cuauhtepc 지역 Cristo Verdad y Vida 교회에서 "구약의 파노라마"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 이상 강의를 듣는 것이 쉽지 않지만 처음부터 마지막 모임까지 꾸준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의 모습 속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을 느끼며 그런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Fuente de agua viva 교회 세미나입니다. 수년 전 부터 다른 현지 목사님을 통해 저희 사역을 소개받았지만 올해 비로소 첫 세미나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7주 동안 "성경묵상 훈련"을 진행했는데 마지막 모임 때는 연장해서 인도해달라

는 부탁을 받고 5월 4일부터 6주 동안 다른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반가운 설교 청탁을 받았습 니다.

4년 전 몇 번 말씀을 나누었던 Puerta del Cielo교회 청년부담당에게 연락을 받고 3월 14일 "Semana de la Juventud"(월/금) 매일저녁 찬양과 말씀으로 청소년들에게 도전하는 집회) 설교 부탁을 받았습니 다. 어린 나이에 남미로 이민 가 그곳에서 자라 문화와 언어의 벽이 없이 현지 분들과 관계를 맺다 보니 청년들이 직접 추천하고 의견을 모아 초대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난 누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품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응답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주말마다 현지교회를 돌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경묵상집 출판과 여름 수련회

두 달에 한 번씩 출판되는 성경묵상집도 꾸준히 출판되고 있습니다. 현재 200부씩 출판하고 있지만 수요를 차 채울 수 없는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이 일을 돕는 편집인들과 재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꾸준히 진행되는 정기 사역과 현지 동역자들로 인한 감사함입니다. 매달 진행되는 "정기 세미나"와 "리더 양육"은 저희들이 섬기는 귀한 사역입니다. 특별히 "리더 양육" 모임은 성경묵상 사역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앞으로 세미나 인도와 소그룹 모임 지도자로 훈련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목사사역 7년째 접어들고 보니 이전 그 분들 중에서 세미나를 인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되었습니다. 서로 의지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묶어 주시고 성장시켜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7월 16-19일에 청, 장년을 대상으로 수련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2006-2008년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련회를 했었지만 많은 성도님들의 요청으로 이번에는 대상을 바꾸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박4일 동안 개인 성경묵상훈련과 소그룹 모임과 세미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사역들을 위해 늘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아름다운 사역이 되도록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박지만/한여정 선교사 드림

▲연락처: ebesdras@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안내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제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Tel: (02)223-7797, Fax: (02)223-4229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20-27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계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지체예배: 오후 7:30 Tel: (02)1121-8794-6 군포시 삼정동 370-102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Tel: (02)223-4229-111, Fax: (02)223-4229-112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40-1215	김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동철 주일1부예배: 오전 7:4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223-4229-111, Fax: (02)223-4229-112 경기도 김포시 서곶동 2015-215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8:00 Tel: (02)223-4229-111, Fax: (02)223-4229-11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20-27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8:00 Tel: (02)223-4229-111, Fax: (02)223-4229-112 2-20-9 Ganda Shiga-1st, Tokyo, Japan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영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Tel: (02)223-4229-111, Fax: (02)223-4229-112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1520-27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정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Tel: (02)223-4229-111, Fax: (02)223-4229-112 VIA DEI QUERULI 32-38 00173 ROMA, ITALY	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Tel: (02)223-4229-111, Fax: (02)223-4229-112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40-1215	삼보교회  담임목사: 박정훈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Tel: (02)223-4229-111, Fax: (02)223-4229-112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40-1215	새연교회  담임목사: 송경희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223-4229-111, Fax: (02)223-4229-112 경기도 김포시 서곶동 2015-215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서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8:00 Tel: (02)223-4229-111, Fax: (02)223-4229-112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40-1215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02)223-4229-111, Fax: (02)223-4229-112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40-1215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Tel: (02)223-4229-111, Fax: (02)223-4229-112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1520-27
수영로교회  담임목사: 어규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Tel: (02)223-4229-111, Fax: (02)223-4229-112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40-1215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Tel: (02)223-4229-111, Fax: (02)223-4229-112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40-1215	승문교회  담임목사: 박정훈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223-4229-111, Fax: (02)223-4229-112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40-1215	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223-4229-111, Fax: (02)223-4229-112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40-1215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진용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8:00 Tel: (02)223-4229-111, Fax: (02)223-4229-112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40-1215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8:00 Tel: (02)223-4229-111, Fax: (02)223-4229-112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1520-27	안암제일교회  담임목사: 조윤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Tel: (02)223-4229-111, Fax: (02)223-4229-112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1520-27
안곡교회  담임목사: 정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주일6부예배: 오후 9:30 Tel: (02)223-4229-111, Fax: (02)223-4229-112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40-1215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지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Tel: (02)223-4229-111, Fax: (02)223-4229-112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40-1215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Tel: (02)223-4229-111, Fax: (02)223-4229-112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40-1215	주안교회  담임목사: 나권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223-4229-111, Fax: (02)223-4229-112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40-1215	장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8:00 Tel: (02)223-4229-111, Fax: (02)223-4229-112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40-1215	장주주의교회  담임목사: 주서석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8:00 Tel: (02)223-4229-111, Fax: (02)223-4229-112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40-1215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경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02)223-4229-111, Fax: (02)223-4229-112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40-1215

반기독교적인 미국 법안 안내



아는 게 힘!(7)

새라킴 사모

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TVNEXT.org) 설립자, Christian Coalition 한인대표

캘리포니아를 회복시킵시다! 건 강한 가치관, 건강한 성 정체성을 가진 다음세대를 일으키는 서명운동에 지금 동참해주세요! SB48 지지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4월 16일이 마감일입니다. 긴급 SOS!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와 미국의 부분적인 지역들은 부모님들 몰래 아이들에게 동성애 및 성전환자, 양성애자 라이프스타일들을 "건강"하고 극히 "정상적"이며, 사람들에겐 "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과서에서 그런 것들을 삭제하고 전체를 다 바꾸는 것을 지금까지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소식은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자로 태어났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지금 이성애자로 돌아오고 있다는 좋은 소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성애자 성향이 환경과 잘못된 두뇌의 작용으로 있을 수는 있어도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자들로 태어난다는 사실은 어디에도 증명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지금 이성애자들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칠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성 정체성이나 도덕적 가치관들이 제대로 잡혀지지 않은 어린아이들이 공립학교에 가서 부모들 몰래, 성 정체성의 균형이 제대로 잡혀지지 않은 교육을 고스란히 세뇌(brainwash) 당하고 오는 적이 돼버린 것이지요.

이렇게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들로 변해 돌아온다는 좋은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됩니다. 동성애자 친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정상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소망이 있음을 알려 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미국과 캘리포니아가 회복되는 서명운동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참여 하세요!

비록 교과서로 만들어지지 않았어도 수십년 전부터, 우리의 자녀들, 손자손녀들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제대로 정확히 배우지 못했던 동성애 및 성전환자들, 양성애자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무척 긍정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Human Rights(인본주의)란 이름 아래 학교에서 배워왔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앞으로 미국에서 살게 될 우리 자녀, 손자 손녀들의 미래를 깊이 아끼고 염려하는 한인 사회가 일어나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미국 시민의 권리와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확실하게 승산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또는 매우 소극적으로만 반응한다면, 또는 "나 중심" "내 교회 중심" "내 가정 중심" 으로부터 우리 시야와 비전을 좁힌다면, 우리는 우리의 다음세대들에게 10년 후, 아니 5년 후에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 핑계 외에는 아무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2008년 국민투표에서 이미 이긴 Prop8을 샌프란시스코의 몇 안되는 판사를 맘대로 뒤집고자 하여 지금까지 계속 Prop 8이 "위헌인지 위헌이 아닌지"를 싸워야 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으며, 2011년에는 동성애자인 상원의원 Mark Leno(민주당)에 의하여 이제는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들의 사회과학 역사 교과서에까지 동성애자들을 긍정적으로만 가르치는 SB48이라는 법안까지 만들어내었지요. 그 후 SB48은 캘리포니아 주지사인(민주당) Jerry Brown에 의하여 쉽게 통과를 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미국에서 살게 될 우리 자녀, 손자 손녀들의 미래를 깊이 아끼고 염려하는 한인 사회가 일어나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미국 시민의 권리와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확실하게 승산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또는 매우 소극적으로만 반응한다면, 또는 "나 중심" "내 교회 중심" "내 가정 중심" 으로부터 우리 시야와 비전을 좁힌다면, 우리는 우리의 다음세대들에게 10년 후, 아니 5년 후에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 핑계 외에는 아무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비록 시민권자가 아니고 유권자가 아니라더라도 캘리포니아에서 사시는 모든 한인 분들은 이 서명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로 또는 자원봉사자라도 캘리포니아와 미국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힘써 의의 것발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발의안들의 마감(Deadline): 만일 2012년 11월 국민투표(ballot for election)를 위한 법안으로 가져가기 위하여 "한인" 서명인들은 4월 16일(늦어도 17일까지) 서명된 청원서가 밀의 주소로 도착하도록 보내야 한다. 왜냐하면 Dead drop due date to California Attorney General's office가 4월 20일이기 때문이다.

교과서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과서라는 책에 한번 글자로 새겨져 나오기 시작하면 잘못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것들을 삭제시킬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공립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화론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미 잘못된 것임을 과학자들과 가르치는 선생님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으면서도 교

발의안들의 마감(Deadline): 만일 2012년 11월 국민투표(ballot for election)를 위한 법안으로 가져가기 위하여 "한인" 서명인들은 4월 16일(늦어도 17일까지) 서명된 청원서가 밀의 주소로 도착하도록 보내야 한다. 왜냐하면 Dead drop due date to California Attorney General's office가 4월 20일이기 때문이다.

더 많은 것들을 포함할 수 있는 발의안으로서, 동성애 교육뿐 아니라 공립학교에서 이뤄지는 사회과학과 역사, 가정교육에 대한 교육내용들 중, 부모가 자녀들이 배우기 원하지 않는 반기독교적이며 비도덕적 또는 비윤리적인 내용들이 있다면 자신의 자녀들을 그런 학업에서 미리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권한과 권리들을 보장하는 발의안이다.

현재 SB48의 법안에 의하여 "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권리"는 이미 빼앗긴 상태이며 부모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는 교육에 실제로 관여할 수도 아이들을 데리고 나올 수 없게 되어있다.

2. California Parents Rights (CPR): "낙태전 부모의 허락받기"

이 발의안은 18살이 안된 자녀들이 부모의 허락과 의논없이 맘대로 의사들하고만 결정하여 낙태하는 것을 막는 발의안이다. 의사는 48시간 전에 부모에게 통보를 해주어야 하게 만드는 게 이 법안의 취지이다. 보통 미성년자들은 돈이 없고 몰래 하여야하기에 어느 누구의 보지도 없이 Planned Parenthood처럼 우리의 세금을 받음으로 낙태를 원하는 미성년자들에게는 싸게 낙태시켜주는 곳을 찾아가서 청결결과, 전문성도 없는 의사와 간호사들에 의하여 낙태를 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또한, 낙태 후 가장하여 아기를 태어나게 한 후 성매매하는 다른 데로 돌려지는 위험도 따른다.

3. CLASS ACT:

Children Learning Accurate Social Science Act의 약자로 이미 SB48법안 통과에 의하여 Social Science(사회 과학) 및 역사과목에서 동성애/성전환자/양성애자들에 대하여 긍정적으로만 교과서에서 기록하여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 12학년생들에게 가르치게 하는 교육을 전적으로 반대하며 그 법안을 폐지하기 위한 발의안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과학과 역사과목에 있어서 자녀들이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자 등에 대하여 정확히 배우게 하는 법안으로, 현 SB48의 한 쪽으로 기울어진 교육내용들을 삭제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발의안들의 마감(Deadline): 만일 2012년 11월 국민투표(ballot for election)를 위한 법안으로 가져가기 위하여 "한인" 서명인들은 4월 16일(늦어도 17일까지) 서명된 청원서가 밀의 주소로 도착하도록 보내야 한다. 왜냐하면 Dead drop due date to California Attorney General's office가 4월 20일이기 때문이다.

▲연락처: tvnext.org@gmail.com

매일가정예배

권영국 목사(LA대흥장로교회)

월 자기 부인(否認) (마21:23-27)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세례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백성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하지 못하는 것이 나옵니다. 즉 그들은 정작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백성들의 입장, 곧 여론에만 좌우를 곤두세우는 한심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주의 진실한 일꾼들은 자기의 할 일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여론 따위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고난, 비난과 조롱을 당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하였으므로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여론의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주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요구되는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마16:24).

화 행함이 없는 지식 (마21:28-32)

오늘 본문의 '두 아들의 비유'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실상을 밝히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경건 생활에 꼭 필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경건은 아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무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 알고 있었

습니다. 그들에게 경건 생활을 위한 기초는 이미 마련되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유혹과 탐심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 뜻이 순종이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수 하나님의 관심 (마21:33-46)

본문에 나오는 비유에서 악한 농부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죽임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36절에 보면 집주인이 농부들의 행위를 알고서도 전보다 더 많은 종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엿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히 여기시

기에 할 수만 있다면 마지막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십니다. 성도와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와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중병에 걸린 사람은 한시가 급합니다. 교회 울타리 밖에서 방황하는 영혼들, 그들을 돌이키도록 복음을 전하는 시기는 오직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바로 지금뿐입니다.

목 천국 예복 (마22:1-14)

본문은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 잔치를 베풀 임금의 비유입니다. 특별히 11-13절에 보면 임금이 혼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책망하며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미리 청함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사거리에서 오다가 청함을 받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스스로 예복을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잔치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은 어디에서 예복을 준비하였습니까? 그것은 임금이 친히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예비하신 천국 예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칭의라는 예복입니다. 이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롬3:28). 천국 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예복을 입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이 의의 옷을 입었습니까? 지금 확인하십시오.

금 강력한 무기 (마22:15-22)

22절에 보면 예수님을 울무에 걸리게 하고자 세금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의도 제기하지 못한 채 그 자리를 떠난 사실이 나옵니다. 그들은 말씀에 놀라움을 표시했을 뿐 감히 한마디도 더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단과 싸울 때에 우리가 사용해야 할 강력한 무기가 어떤 것인지 교훈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

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한 진을 파하는 위대한 능력입니다(고후10:4,5). 우리가 이 무기로 마귀의 공격에 대응한다면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결코 패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우쭐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에 의존하려고 시도하는데, 이는 패하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사단의 공격을 무찌를 수 있는 우리의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토 함정 (마22:23-33)

본문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들과 예수님 간에 있었던 '부활논쟁' 기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귀족 제사장 가문에 속한 자들로 주후70년 예루살렘 멸망 때까지 바리새파와 양대 산맥을 이뤘던 유대교의 한 분파입니다. 이 파의 두드러진 특징은 유전을 거부하고 부활과 영혼불멸 및 영적세계를 부인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오직 '지금', '여기'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리새인들에 비해 현실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들이 인정했던 것은 성문화된 율법, 모세오경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지식층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해하려 하기 때문에 신앙조차도 과학적 증명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믿음으로만 수용이 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진리로 받고 그 성경이 말하는바에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카리스 종합주석

NEW /원어/배경 /주석/강해 /One Stop Reading

카리스종합주석은 성경에 관한 모든 종류의 질문과 상호 관련하여 새롭게 종합 정리되어 있는 세계 최초의 저작입니다.

날권 \$30
전권 구입시 \$25 each

기독교인을 위한 최고의 선물

- 다니엘 전자성경
- 만나 전자성경

도서

신앙서적, 일반서적, 신간도서, 베스트 셀러, 가정/결혼, 교양/문화, 교회교육, 교회음악, 디지털바이블, 묵화와 신학, 성경/찬송가, 성서연구, 소프트웨어, 신앙생활, 신학일반, 실천신학, 어린이/청소년, 영적성장, 오디오북, 원서, 정기간행물, 전도/선교

HIS media 히스미디어에서 하는 일

교화를 건축하시거나 증축하실 때 미리 연락주시면 경비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의 가격으로 최대의 효과

- 철저한 어드바이저 서비스
- 좋은 화질의 제품, 저렴한 가격
- 소형에서 대형까지 무료 상담
- 멀티미디어 프로젝터와 스크린 판매 & 설치
- 음향/영상/조명장비 판매 및 설치
- Multimedia Projector & Screen 판매
- Consulting/Design/Set up

2300 Ansi Lumens \$699
2600 Ansi Lumens \$799
3000 Ansi Lumens \$899

그 외 다수의 밝기 모델 취급함

음악

새로나온 음반, 베스트 셀러, 국내음반, 비디오/DVD, 악보, 어린이, 해외음반, 진송가, 연주 음반

교회용품

목사 가운, 성가대 가운, 크리스탈 강대상, 강대상, 교회음악 선물용품, 시상/행사, 예배용품, 카드, 기타

E7 미가엘 반주기

- 선명하고 넓은 LCD 화면
- 원음에 가까운 연주
- 본체 고정용 스탠드
- USB 포스트 가능
- 오가드 사용
- 터치스크린 방식
- 실시간 연주방식

HIT상품 미주총판

찬양연주기, 정경 DMB, 네비게이션, 영화, 음악 FM라디오, 음성녹음 가능

미공동부 지사 획득! 특별세일

엘리엇구사

에히드수정판대성

BEAD CRYSTAL PULPIT

LED LAMP를 설치하면 빛나는 강단상 불타오르는 특별한 디자인

크리스탈 성구사

최저가격 보장

성구사 3000 (50x30x40cm)

특수디자인 (이탈리아) 크리스탈

LED 조명 (3000K) (이탈리아)

대형 (50x30x40cm) (이탈리아)

대형 (50x30x40cm) (이탈리아)

대형 (50x30x40cm) (이탈리아)

대형 (50x30x40cm) (이탈리아)

대형 (50x30x40cm) (이탈리아)

주문처

성경, 찬송가 등 기독교의 모든 것

할렐루야백화점

HALLELUJAH BOOKS, Inc.

인터넷 샵핑몰 www.gospelmail.com

NY 131-01 39th Ave., Flushing, NY 11354 Tel.(718)762-0011/Fax.(718)762-8402 1-800-404-1171

NJ 205 Bergen Turnpike Little Ferry, NJ 07643 201-373-0030

LA 808, 808, 808 (213)447-4011

정경, 찬송가 기독교서적 일반서적 영문기독교서적 강대상, 가운, 달력, 다이어리



제3기 이민목회 멘토링세미나

뉴욕

일시: 2012년 4월 24(화) - 25일(수)

시간: 오전 9시- 오후 5시

장소: 뉴욕 퀸즈한인교회 (이규섭목사)

강사: 손인식 목사

-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얼바인, 캘리포니아)
- 창조적 목회프로그램, 강렬한 설교와 영성사역, 현재 6천명 출석 성도
- 이민목회 가정사역 및 성장형 예배 주강사
- 교회성장 실험교실 주강사
- KCC/그날까지 선교연합 대표간사
- Washington Bible College/Capital Bible Seminary

주최: 디아스포라 이민 목회 연구원
 등록: 일인당 30불
 인원제한: 이민목회자 20명 제한
 (멘토링 세미나 특성상 인원제한)

미국에서만 35년째 목회하며 이민교회의 특성, 장점, 약점, 성장, 비전실현 등의 모든 과정을 걸어왔습니다. 현재 6천명의 출석성도, 250개의 셀교회, 43명의 목회진, 92개의 평신도 사역팀들이 한인교회의 건강한 모델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오십시오! 다 나누겠습니다!

목회 멘토링을 목말라하는 젊은 목회자들과 가슴을 열고 35년 목회를 돌아보겠습니다!!

■ 3기 이민목회 멘토링 세미나 참가 신청서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H) _____

(C) _____

이메일 _____

참가는 교회 _____

직책 담임목사() 부교역자()

연령(Age) _____

기도제목들: _____

신청서 보낼 주소 (베델한인교회):
 Attn: 김영빈 목사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체크보내주소: Pay to the order of: Bethel Korean Church



접수 안내

- 접수: 4월 20일까지 접수마감(선착순) / 반드시 등록비 동봉 접수
- 접수양식은 베델교회 홈페이지(www.bkc.org)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연락처: 김영빈 목사 (714-873-7315 / bethel4jx@gmail.com), 류태우 목사 (714-323-3931 / holynation2003@msn.com)
- 이메일: pastorsoffice@bkc.org

* 위의 신청서를 절취하신 후 등록비를 동봉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27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및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



발행인 장영준 목사

주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Take His Word, Return to The Lord!

주최: 미주크리스천 신문

강사



김용도 목사
• 금란교회
• 주강사



소강석 목사
• 새에덴교회
• 주강사



권태진 목사
• 군포제일교회
• 주강사



황의영 목사
• SBM, 대표



현성덕 목사
• 캐나다 대회장



김기원 목사
• 장위제일교회



조일래 목사
• 수정교회



승용굴 목사
• 신천교회
• 현지준비위원장



이영섭 목사
• 불티모어교회



이명연 목사
• 나성서부교회



김승욱 목사
• 할렐루야교회



홍민기 목사
• 호산나교회



조일구 목사
•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김규동 목사
• 요한동경교회



승규석 목사
• 차세대 연구소 소장

제27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등록 신청서

이름	한글	영어	직분	성별
이름	한글	영어	직분	성별
교회 이름	한글			
	영어			
교회 주소				
전화	Fax.		E-mail.	
사택 주소				
전화	Fax.		E-mail.	

()와 같은 방을 쓰기원함

관광에 참여하기 원함

등록금	목회자	
X명	평신도	
소계		
선금	CK#	
잔금	CK#	

본인은 제27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주후 20 년 월 일

서명: _____

* 위의 영어 명은 반드시 여권 이름으로 써 주십시오
* Pay to the order 는 The Christian Press 로 써주시면 됩니다.
* 등록 (100불 이상 등록금을 보내신 분) 즉시 등록 접수증을 보내드립니다.
* 전금을 등록일까지 이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등록 취소 시에는 50불을 제외한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일 시 2012년 4월 17일(화) ~ 4월 20일(금)

▶ 세미나장소: 한국 금란교회 ▶ 숙소: 워커힐 호텔

- **참석대상** 1) 현재 시무중인 한인 목회자, 선교사, 전도사 부부
2) 평신도 지도자(장로, 권사, 집사)
- **온라인등록** 웹사이트 www.chpress.net 를 방문하셔서 개인정보와 교회정보를 입력하신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등록금**
목사·선교사: 200달러(24만원) | 평신도지도자: 200달러(24만원)
한국현지등록: 50불(6만원) (숙박제외) (*선착순 마감)
- **연락처**
NY: 노선희 전도사 TEL.(718)886-4040, FAX.(718)358-7789, sunnykapcq@yahoo.co.kr
LA: 이성자 전도사 TEL.(323)665-0009, FAX.(323)665-0046, presssj@hanmail.net
한국 등록처: 박종인 장로 (금란교회 사무국장) TEL.(02)490-7000, FAX.(02)436-5770
- 등록금 계좌번호: 하나은행 (279-910002-91105), 예금주: 금란교회, 입금자명 옆에(세마나)를 기재해 주세요.
- **항공권/관광 문의**
- 담당자: 유 여행사 (718)463-9500 / Mrs. 유Miss 진 / yootravel@hot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